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 진행절차 및 연구방법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제 2차 성장으로 급격한 심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이성애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되며 성 충동과 성적 갈등으로 고민하게 되며 이것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았을 때 성 비행, 또는 성적 일탈 및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90년대 이후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특히 청소년 성 매매, 청소년 성 경험율의 증가, 10대 임신 증가 등 청소년 성 비행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대중매체,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여과 없이 전해지는 왜곡된 성에 대한 메시지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 의식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념과 의식, 행동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개방적, 허용적 태도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1)의 문제행동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69.9%), 성 관계(34.4%)에 대해 상당수 청소년이 허용적 태도를 보유하고 있다. 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반드시 성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에 대한 태도는 성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¹⁾

성 관련 문제행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집단은 누구

1) 조아미는 성행동은 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의 세 가지로 나누고 성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허용형이나 쾌락형일수록 성 관련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밝혔다(조아미, 2000 : 42-24).

인가? 한국청소년개발원(2001)의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란물 열람, 성 관계, 포르노사이트 열람 등 대부분의 성 관련 문제행동에서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인문고 보다는 실업고 학생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1, 표 I-2 참조). 남자청소년,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성 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가장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성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10시간 성교육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단행하였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청소년 성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또한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표 I-1> 성 관련 문제행동의 성별 비교

단위: %

구 분	하위 문제행동	남 자	여 자	비 고
규범적 문제행동	음란/포르노물 열람	74.7	37.8	남
	이성친구와 성적 접촉	26.6	27.8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6.6	4.2	남
법률적 문제행동	성 매매	0.9	0.6	
	강제적인 성관계	0.9	0.5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성관계	3.5	1.3	남
	사창가 배회	5.4	2.9	남
사이버 문제행동	음란/포르노 사이트열람	70.5	25.2	남
	음란성 게임	35.4	4.2	남
	음란대화 시도	17.9	8.4	남

출처: 이종원 외(2001). 전국청소년문제행동 실태조사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pp. 37-216에서 재구성한 것임

<표 1-2> 성관련 문제행동의 학교급별 비교

구 분	하위 문제행동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비고
규범적 문제행동	음란/포르노물 열람	42.2	66.7	72.1	실
	이성친구와 성적 접촉	15.2	32.7	43.4	실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3.0	4.7	11.9	실
법률적 문제행동	성 매매	0.6	1.0	0.7	
	강제적인 성관계	0.6	0.9	0.8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인 성관계	2.2	3.0	1.9	
	사창가 배회	2.9	4.4	6.8	
사이버 문제행동	음란/포르노 사이트열람	36.6	57.3	60.1	실
	음란성 게임	14.3	26.7	25.8	인
	음란대화 시도	11.7	13.0	17.4	실

출처: 이종원 외(2001). 전국청소년문제행동 실태조사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pp. 37-216에서 재구성한 것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실시할 수 있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호시설 감호 청소년이나 성 매매 청소년 등 특수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비영리단체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시범학교, 성교육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남자청소년 역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피해자이다. 성에 관한 논의를 금기시해 온 한국사회의 유교문화적 전통 속에, 청소년의 성은 물론 성인의 성도 거론될 수 없었다. 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유교문화적 전통에 자본주의가 독재적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남성 중

심의 상업적이며 폭력적인 성문화가 한국사회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남자청소년 역시 음란매체/사이트의 주요 수요자이며 성폭력의 한 축이고 미래의 잠재적 성 매수자라는 점에서 성 매매라는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남자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의식 형성은 주요 사회적 과제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의 남자 청소년 대상 성교육은 물리적 시간배분에 있어서도 부족하여 기회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남자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남성 친화적인 것이 되지 못해 실효성이 적었다.

남자청소년들은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성에 대한 이중기준과 성에 대한 사회화 과정에 따라, 또래집단이나 음란매체를 통해 성기 중심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성교육을 전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전통적인 순결위주의 성교육을 주로 받아 왔다.

남자 청소년들의 실제적 삶에서 성(Sexuality)이 주요한 담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적 영역에서만 머물렀을 뿐 교육적 담론으로 이끌어지지 못한 것이다. 성기중심적, 행위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는 남자청소년들에게 친밀감, 정서, 느낌으로 성(Sexuality)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일이야말로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폭력적이고 상업적인 성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 관계 및 임신, 음란매체 접촉, 청소년 성폭력, 성 매매 등 청소년의 '위험한 성'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자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남자청소년을 위한 '위험한 성'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남자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제2부는 이를 기초로 개발된 성교육 프로그램의 최종 성과물이다.

제 1권에서는 먼저 청소년 성행동의 이해를 위해 청소년의 성을 보는 관점과 성태도, 성행동 등을 다루며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요인과 청소년의 '위험한 성' 행동 유형과 특징, 원인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청소년의 성 관련 위험행동 실태 및 남자청소년의 성교육 요구를 분석한다. 청소년의 성 관련 위험행동으로서 성 관계 및 임신, 음란매체 접촉, 성폭력, 성 매매 실태를 살펴본다. 남자청소년의 성교육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남자청소년의 성 고민내용과 성 고민 해결방법, 남자청소년의 성교육 경험 및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선행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성교육 전문기관의 상담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청소년의 '위험한 성' 예방을 위한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남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없다. 학교차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도 이래 실시한 성교육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범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학교 성교육은 일반청소년, 남녀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기관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매매, 성폭력 청소년 등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다. 미국의 프로그램으로는 남자청소년 대상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남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해 남자청소년에 대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살펴본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성'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프로그램 매뉴얼을 수집, 검토하였으며 본 프로그램 개발의 도움자료로 활용하였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일환으로 예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중 검토가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시범캠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범캠프를 기초로 프로그램(안)에 대한 평가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자청소년에 대한 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결론으로 대신하고 있다.

제2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남자청소년의 '위험한 성' 예방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이는 학교교사, 또는 지역사회기관 성교육 전문가가 학교의 C.A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을 통해 1회 50분, 1학기(16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성(Sexuality)!! 현명한 선택을 위한 준비'이다. 본 프로그램은 7개 영역 15개 단위활동 프로그램과 캠프나 학교행사로 활용할 수 있는 2개 종합활동 프로그램을 합쳐 총 17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표 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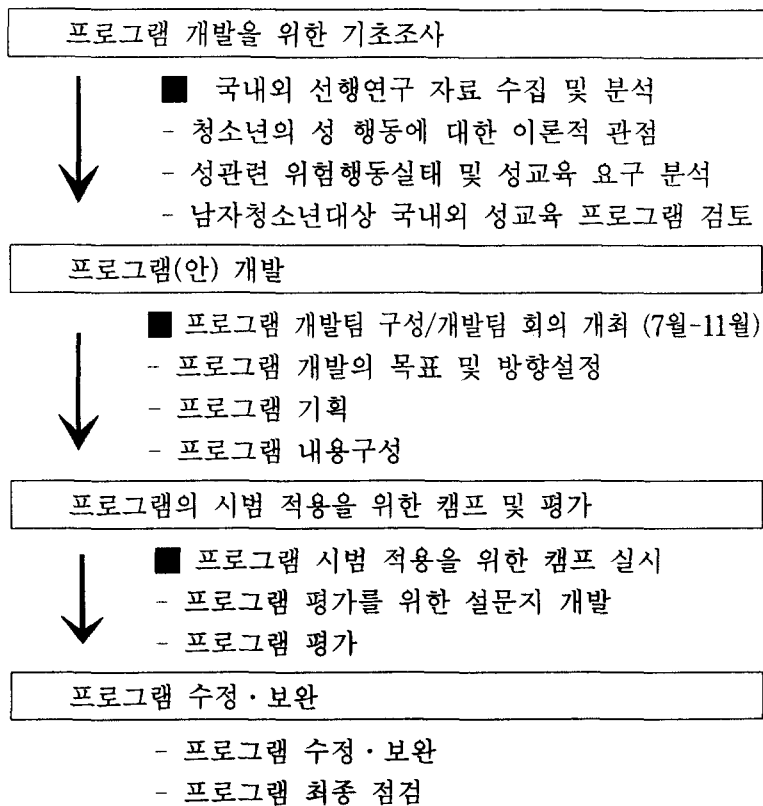
<표 1-3> 프로그램 구성

주제영역	단위프로그램
I. 남성성 이해하기	1. 남자! 확대경으로 들여다 보자
	2. 남성 콤플렉스 뛰어넘기
II. 남자대 남자 관계 맺기	1. 좋은 아버지 되기
	2. 아버지와의 관계 성찰하기
III. 성지식 바로 알기	1. 자기관리와 성 충동
	2. 성 지식 퀴즈대회
IV. 몸 이미지 관련 자각	1. 나의 몸은 나의 것
	2. 내 몸이 웃어요!
V. 책임과 안전한 성	1. 책임과 안전한 성
	2. 피임법 바로 알기
	3. 성병 바로 알기
VI. 선택과 성적 의사결정	1. 성적 의사결정 훈련
	2. 데이트 성 폭력
VII. 좋은 관계 만들기	1. 내 말에 귀 기울여 줘!
	2. 자신의 사랑 유형 탐색하기
VIII. 종합응용프로그램	1. 남자청소년 성교육 캠프
	2. 성교육 모의법정

3. 연구 진행절차 및 연구방법

1)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역점은 프로그램 개발이다. 남자청소년을 위한 '위험한 성' 예방 프로그램은 [그림 I-1]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되었다.



[그림 I-1] 연구진행절차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탐색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청소년의 성 행동을 보는 관점, 위험한 성 행동 유형 및 특징, 원인에 대한 문헌이 고찰되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의 '성 관련 위험행동' 실태 및 남자청소년의 성 교육 요구를 선행연구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들의 남자 청소년들의 '성 관련 위험행동' 실태 및 성 교육 요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할 것도 검토하였으나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자료들이 비교적 축적되어 있고 본 연구의 방향을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2) 사례조사

남자청소년 대상 '위험한 성'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교육부의 성교육 정책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기관의 성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이 분석되었고, 미국의 남자청소년 대상 임신예방프로그램 사례가 분석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구체적인 도움을 얻고자 남자청소년대상 임신예방 프로그램 및 성 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등의 관련매뉴얼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성문화연구소,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부설 성교육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국내 성교육 전문기관의 전문가, 대학·연구기관의 청소년 성 교육 및 성 비행에 대한 전문연구자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논의

를 통해 청소년 성교육의 현실과 성 비행 예방을 위한 현실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영상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물의 범람,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태도, 성행동의 급속한 변화 가운데 성폭력, 성 매매 등에서의 청소년 성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청소년 성 비행 예방을 위한 성교육이 너무 여자 청소년에 치우쳐 있으며 남자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은 부재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 성 비행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표집단은 범죄 청소년 등 특수 집단 보다는 학교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남자청소년집단, 성교육에 대한 현실적 욕구가 높은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하기로 하였다.

(4) 프로그램 개발팀 구성, 운영

프로그램의 실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성교육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하였다. 협력기관으로는 성교육 전문기관 중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성교육 전문성을 축적해 온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선정하였다. 학교중심의 전형적인 성교육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청소년 활동과 체험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이면서 학교, 교사와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개발팀에는 본 연구의 연구진 2명과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스태프 2명, 성교육교사회 소속교사 3명 등 총 7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개발팀은 2002년 7월에 구성하여 11월까지 활동하였으며 남자청소년의 성교육 문제점 분석, 외국의 남자청소년 대상 성교육 매뉴

얼 검토, 한국현실을 고려한 프로그램 방향 및 목표설정, 내용설계 및 구체적인 구성, 시범캠프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보완, 수정까지 주 1회의 정기 회의를 운영하였다.

(5) 시범 캠프 운영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을 위한 캠프는 “니들이 멋진 남자를 알아”라는 슬로건 하에 2002년 11월 2일(토)과 11월 3일(일), 1박 2일간, YMCA 의정부 다락원 캠프장에서 진행되었다. 본 캠프에는 고등학교 1, 2 학년 남학생 27명이 참가하였고 몸과 의사소통하기, 남성성 이해하기, 좋은 아버지 되기, 자기관리와 성 충동, 책임과 안전한 성, 성문화 뒤집어 보기 등 6개 주제영역 프로그램이 시연되었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프로그램 개발팀에 의해 면밀히 관찰되었고 프로그램 개발팀은 매일 평가회를 갖고 단위프로그램별로 문제점과 수정 보완 방향을 설정하였다.

(6) 설문조사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설문지를 개발, 캠프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은 캠프 참가 청소년들의 성 지식, 성 태도, 성 행동 실태 관련 문항과 시연 단위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후 설문은 단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과 단위프로그램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Ⅱ. 청소년의 ‘위험한 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청소년기 성 행동 이해
2. 청소년기 위험 행동
3. 청소년기 ‘위험한 성’ 행동 유형과 특징

II. 청소년의 '위험한 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청소년기 성 행동 이해

신체적 성장과 성적 성숙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적 현상이며 그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성 행동은 이성과의 로맨틱하고 친밀한 관계를 촉진시키기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성 행동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즉 청소년들은 종종 안전하지 못한 성 행동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 성폭력, AIDS 등과 같은 성병 등으로 인해 청소년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이성과의 성 경험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세 청소년들의 반 정도가 성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첫 경험 연령은 평균 16세로 나타났으며(Murstein & Mercy, 1994), 20세의 경우 남자의 80%, 여자의 70%가 성관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 고등학생 1,9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20명(16.2%)이 성행위를 경험하였으며, 여고생 3,16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35명이 성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대한가족협회, 1996; 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또한 우리나라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영삼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17.9%의 학생이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인화(1999)의 연구에서는 중고생 13%가 성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박현이(2000)는 응답자의 17.9%가 성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단

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성 관계를 가질 때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임신 및 낙태율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못한 성 관계로 인해 성병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1,200만 명의 성병 감염자 중 청소년들의 비율은 25% 정도이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병 감염의 위험률이 매우 높다.

과거에는 성적으로 경솔하고 무분별한 행동은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예를 들어, 혼전 성 관계에 대해 과거의 가정과 사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금지하여 왔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죄책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껴야 했다. 특히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상담에서 주된 고민거리가 되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에 비해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으며,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성 행동이나 성적 관심의 표현에 대해 단순히 수용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오늘날의 사회는 청소년들의 성적 관심 표현에 다소 혼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성적 표현이 수용되는 시간과 방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 관심의 표현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즉 성적 관심의 표현 방법과 시기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또는 금지되기도 한다.

사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엄청나게 많은 성과 관련된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 선정적인 TV 프로그램, 케이블 방송, 비디오, CD, 인터

넷을 통해 전달되는 성 관련 정보, 생활 주변 도처에 깔려 있는 성을 자극하는 환경, 동료들과의 성적 농담 등 거의 하루도 자극적인 성 관련 정보를 접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성 관련 정보를 수용하고, 건전한 성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안전한 성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정확한 성 정보를 얻고 안전하고 책임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구,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환경적 개선과 정책적 고려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다소간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않다. 우리가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들의 성 태도나 성 경험 정도, 안전하지 못한 성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성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러한 성 경험이 청소년들의 생활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Brooks-Gunn & Furstenberg, 1989).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과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해석하고 또한 청소년 응답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적 바람직성이란 응답자들이 자신의 진실된 반응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 비행 등을 다루는 질문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개의 남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위험한 성 행동을 감소시키고 건전하고 건강한 성 행동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 태도, 현재의 성 행동, 성 행동의 의미, 위험한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성 행동과 태도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위험한 성 행동에 대한 이론적 관점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성적 관심에 대한 시각

성 호르몬의 극적인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사춘기의 성적 욕구와 흥분은 아동기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며 성 행동 역시 아동기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춘기의 성 호르몬은 2차 성징을 발달시키는데, 남자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준과 성 행동, 성 욕구는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다. 여자의 경우, 성 호르몬은 성 행동보다는 성에 관한 관심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 또 남자 청소년의 성 행동보다는 덜 충동적인 여자 청소년의 성 행동은 사회적인 금지나 규제에 의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보다 잘 통제되어진다.

사춘기가 되면 남자 청소년들은 종종 밤에 자연적인 발기를 경험하기도 하며, 이러한 발기 현상은 성적 자극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적 흥분을 통해 쾌감을 느끼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 변화에 대해 당혹감이나 죄의식을 느껴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katchadourian, 1990 : 330-351).

청소년의 성적 관심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 모델로서 본능적인 성적 욕구와 충동을 강조한다. 두 번째 관점으로 사회문화적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는 성 행동과 태도는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지며 문화적인 영향을 강조한다(Miller & Fox, 1987). 세 번째로 사회생물학(biosocial)적 관점에서는 청소년기 동안의 성 행동과 태도는 생물학적, 개인적, 사회적 요인 모두를 고려해야만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Jaffe, 1998 : 318-355).

각각의 이론적 모델에서는 인간의 성 행동을 설명하는데 강조하는 요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모델에서 강조하는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즉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도 사회문화적 요인이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요도의 관점에서 볼 때 생물학적 요인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인간의 성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 유전인자, 신경계통과 호르몬의 역할, 문화적 관습과 금기, 종교적 또는 민족적 전통, 개인과 가정의 역사, 동료의 영향, 태도와 가치관 등 가능한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Tiefer, 1995).

인간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근엄하고 도덕적인 견해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바뀐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1920년대에 Freud가 성(Sexuality)을 인간 행동의 중요한 동기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는 유아와 아동을 성적인 존재로 보면서,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성 기관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며, 가족에 대해 성적인 욕구를 느끼며, 자기 스스로를 자극하여 쾌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어린 아동들이 성적 호기심을 표현하고 자신의 성 기관을 자극하였을 때 쾌감을 느끼지만, 성 호르몬의 증가로 강력한 성적 욕구를 느끼는 사춘기까지는 진정한 성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Freud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생

식기(genital stage)에 해당되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강력한 성적 욕구로 인해 혼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가족을 향한 성적 욕구를 이성 친구에게로 바꾸는 것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청소년기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물학적 견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Freud의 연구와 이론이 인간의 성에 관한 현대 이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의 이론에서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적, 인지적 요인들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 행동에 관한 최근의 모델에서는 가족의 가치관, 사회 경제적 지위, 종교, 동료와 매체의 영향, 사회적 환경 등 가능한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Billy, Brewster, & Grady, 1994).

Stanley Hall(1904) 역시 Freud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성 행동을 도덕적 또는 종교적 맥락보다는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Hall은 청소년의 성 행동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시초라고 불리며, 청소년을 아동과 단지 신체적 크기에서 차이가 있는 존재가 아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였다. Hall 이후 청소년기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그의 업적은 대단하게 평가받지만, 그의 주장(특히 청소년의 성에 관한)은 널리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Freud와 유사하게, 자위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주로 인간의 나태함이나 성욕을 자극하는 자극(예를 들어, 그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Downs & Hillje, 1993). 이러한 시각은 성에 관한 오늘날의 심리학적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의 성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살펴본 Downs & Hillje(1993)는 세계 1차대전이 일어난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혼전 성경험이 증가하였고 이성과의 데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산업화, 매체의 발달과 보급, 부모의 감독 소홀, 자극적인 사회적 환경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그 변화의 정도와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다. 청소년들의 성 행동 변화로 인한 결과는 미혼모, 낙태, 성폭력, 성병 등과 같은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2) 청소년의 성 태도

오늘날의 TV 프로그램, 영화, 매체에서의 광고, 패션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성을 자극하고 있다. 성에 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 성에 대해 자신의 자유 의지와 선택을 강조하는 소위 성 혁명 시대를 맞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날 자위행위, 혼전 성경험, 낙태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견해가 만연하게 되었다. 더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의 개발로 인해 임신이나 성병과 같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활발한 성 행동이 성행하게 되었다. 사실 성병이나 임신에 대한 두려움은 자유로운 성 관계를 억제하여 보수적인 성 태도와 가치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성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와 가치관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요된 성 관계, 매춘, 성 학대, 강간 등 성 문제의 주 희생자들은 여성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혼전 성 관계에 대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관대(차별적 기준; double standard)하였던 사회적 시각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성에 관한 차별적 기준은 남성은 통제할 수 없는 성 욕구를 가지며 이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남성의 성욕에 대한 표현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또한 성에 관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

구를 무시하고(심지어 결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성의 성적 표현을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 억제를 강요한다(Oliver & Hyde, 1993).

그렇지만 아직도 차별적 기준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들의 빠른 성 행동에 대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Crockett, Bingham, Chopak, & Vicary, 1996). 성(sexuality)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은 피임이나 성 관계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Steinhauer, 1995). 또한 아직까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보수적인 성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혼전 관계나 혼외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De Gaston, Weed, & Jensen, 1996), 남성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3) 청소년의 성 행동

인간이 왜 성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성 관계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나 상대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기 위해 성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Hajcak & Garwood, 1988). 이들은 청소년들의 성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애정을 추구하거나 외로움을 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성 관계를 갖는다. 또한 이들은 성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자존심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분노 감정을 표현하고 일상의 지겨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의 성 관계는 성과 관계가 없는 욕구나 목적을 달성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청소년들이 성 관계가 가지는 의미와 성 관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감정 상태에 의해 성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과 성 행동의 의미 그리고 성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성의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또 다른 성 행동을 자극한다. 청소년들은 성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미 발달된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심리적, 정서적, 또는 사회적으로 성 관계에 대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갖게 되는 성 관계는 이들에게 심리적 혼돈이나 정신적 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숙되어 안전하고 책임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1) 자기 자극적 성 행동

많은 청소년은 스스로 자기 성기를 자극하거나 성적 환상을 통해 성적인 긴장상태에서 벗어나며 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성 관계를 가지지 않는 청소년들의 성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적다. 자기 스스로 성적 자극을 주는 행동은 초기에 자신의 성적 자아를 탐색하려는 욕구에 의해 시작되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성욕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렇지만 자위행위를 통해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 개인의 자존심 수준은 떨어질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적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Weinstein & Rosen, 1991).

청소년들의 자기 자극적 성 행동과 관련하여 Coles와 Stokes(1985)

는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연예인, 가수, 이성 친구 등에 대해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상은 사춘기의 호르몬과 인지적 변화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성적 환상은 쾌감을 주며 자위행위와 같은 다른 성 행동을 자극하게 된다. 즉 성적 환상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성 행동을 안전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성 행동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성적 환상이 강박적이거나 죄의식을 유발할 경우에는 문제있는 행동으로 간주된다(Katchadourian, 1990 : 330-351).

또한 대개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위행위에 대해 쾌감, 긴장의 해소와 같은 긍정적 감정과 두려움이나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경험한다. 청소년들은 대개 12, 3세 경에 오르가즘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남자 청소년들은 예상하지 않은 사정(몽정)으로 인해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신의 신체 변화에 관한 정보와 자기 자극적 성 행동이 해롭지 않고 자기 혼자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2) 이성과의 성 행동

청소년들이 이성과 성 행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청소년들은 주변의 친구가 성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숙을 확인하려는 욕구 때문에, 이성 친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또 성 행동을 통해 쾌감을 얻고, 호기심 때문에 성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 행동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또 이성과의 성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들의 성 행동이 어느 정도 일상적인 행동이 되었으며, 성 행동을 직접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성 행동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성 행동을 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성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청소년들의 성 행동 양상이 모든 문화와 사회에서 동일한 빈도나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성 행동이 활발해지고 혼전 성 관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론이나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성 행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Crockett 등, 1996). 비록 가정의 사회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의 조합이 청소년 혼전 성 행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기구의 개발로 성 관계가 임신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불안감의 감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낙태의 성행, 혼전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금지의 약화와 개방화된 성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자극하는 대중매체와 신체적으로 이미 성숙한 청소년들이 인정받는 성 행동을 할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Ward, 1995).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의 지위를 얻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성 관계를 하고 있다.

성 관계를 갖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후기 청소년기에 첫 경험을 하지만, 몇몇 청소년들은 그보다 더 일찍 성 관계를 갖는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첫 번째 성 관계를 언제 가졌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 관계를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알코올 남용, 원하지 않는 임신, 학업 실패, 그리고 성병 등과 같은 문제 행동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Bingham & Crockett, 1996; Tubman, Windle, & Windle, 1996). 일반적으로 조기 성숙한 여자 청소년들이 늦게 성숙하는 여자 청소년에 비해 빠른 성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일찍 성 경험을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성 관계와 성 관계 파트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청소년

년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White & DeBlassie, 1992). 따라서 인지적, 감정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 위험한 성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초기 성 관계는 대개 비계획적으로 발생하며 상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거나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에 의해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자주 있다. 남녀 고등학생의 성 행동을 조사한 Harvey와 Spigner(1995)에 의하면, 알코올의 소비는 이들의 성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조기에 성 관계를 갖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성 관계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임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어떤 청소년들은 피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첫 경험이 자기가 기대하거나 희망한 것과는 달랐다고 하면서, 첫 경험 당시 자신이 이용을 당했거나 죄의식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Guggino & Ponzetti, Jr., 1997). 또 남성에 비해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해 덜 만족하며 심지어 고통스럽고 불편하였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의 첫 경험 상대는 자기보다 연령이 조금 많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들은 청소년들의 첫 번째 성 관계는 대개 남자 청소년들의 주도 하에 여자 청소년들은 거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 문제 해결과 성 교육에 있어 남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상대(여성)가 자신의 성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단순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며, 상대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하고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4) 청소년들의 성적 의사결정과 인지적 능력

상대와의 인간관계나 성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복잡한 인지적, 정서적 과정이 관여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와 도덕적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생각하고 그 대안을 평가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도 필요하며,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자신과 상대방의 안녕과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Gordon, 1996).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의사결정 능력과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ego centrism) 등 인지적으로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능한 대안들을 잘 생각해 내지 못하며,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도 예견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부정적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발생하지 않은 가상적 상황에 대한 설정과 그에 대한 평가는 Piaget의 형식적 조작기 사고의 핵심으로 이것이 가능해야만 합리적이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비록 청소년기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고 아동에 비해 청소년기의 인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직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경험들을 통합하고 성 행동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태도는 성인에 비해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형식적 조작기의 추론 능력을 자극하는 훈련이나 프로그램은 성 행동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이 되었거나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역할 연기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보

게 하는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Gordon, 1996). 또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관계의 상대인 여성의 인격을 고려하고 이들이 원하지 않는 성 관계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고통 등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즉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청소년기 위험 행동

위험 행동(risk taking behavior)이란 개인의 건강이나 안녕에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Irwin, 1993).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행동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결과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 행동, 약물 남용, 오토바이 등을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 등이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위험 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은 성별, 인종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개 초기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후기 청소년기까지 지속된다(Irwin, 1993 : 7-28).

그렇다면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왜 청소년기에 위험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청소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그 결과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인지 발달의 특성 중의 하나인 자기 중심적(egocentrism) 사고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기 중심적 사고는 자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다른 유일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성 친구와 헤어진 청소년이 자신의 이별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 행위를 하는 청소년이 성병이나 임신과 같은 부정적인 일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청소년이 교통사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며,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Gray & Hudson, 1984; Riely, Adams, & Neilsen, 1984), 이러한 경향은 인지적인 능력이 증가하면서 감소한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인지적 능력의 증가)시키는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위험 행동(위험한 성 행동 포함)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은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 이외 몇 가지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감각추구 모델(sensation seeking model)에 의하면, 안전하지 못한 성 관계, 약물의 불법적 사용, 위험한 운전 등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흥분을 느끼기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위험 행동은 높은 감각적 흥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색다른 경험과 긴장감을 제공한다(Arnett, 1998). 따라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따분함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험행동을 추구한다고 본다. 감각추구 모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위험 행동(위험한 성 행동 포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여가 문화의 활성화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과 극복 기술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 문제행동 이론(problem behavior theory)을 들 수 있다. 문제행동 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은 동료의 인정과 친구에게서 자신의 자존심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Jessor, 1987). 성인들과는 다른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성과의 성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친구들보다 성숙하였고 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성과의 성 관계가 결코 자랑스럽거나 다른 동료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은 인지적 관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위험한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연구자는 청소년의 위험 행동이 성인보다 빈번한 이유는 아직 청소년들의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였다(Jaffe, 1998 : 139-142).

Moore와 Gullone(1996)은 이러한 청소년의 위험한 행동을 의사결정이론(behavioral decision theory)로 설명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모든 행동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일어난다고 한다. 즉, 1) 대안의 확인, 2) 각 대안의 결과에 대한 탐색, 3) 가능한 결과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4)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의 발생 가능성 평가, 5) 모든 정보를 통합한 후 의사결정.

예를 들어, 어떤 여자 청소년이 성 관계를 요구하는 남자 친구의 말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갈등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그녀는 1) 자신이 택할 수 있는 대안(관계를 갖거나 또는 거절)에 대해 확인하고, 2) 각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탐색(성 관계를 가지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지만, 성 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걸릴 수도 있음, 성 관계를 갖지 않음으로서 두 사람의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였다는 미련이나 후회를 하지 않음 등)하고, 3) 가능한 결과들의 중요도를 평가(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걸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이지만, 남자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비록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임신하는 것보다는 나쁜 결과가 아님)니고, 4) 각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생각(성 관계를 갖더라도 조심하면 임신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야, 성 관계를 거부하더라도 남자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지는 않을 것이야)하고, 5) 이러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함(그렇기 때문

에 지금 성 관계를 가져서는 안돼).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위험한 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일까? 만약 위험한 의사결정이 잘못된 정보처리 과정 때문이라면 이들에게 기본적인 인지적인 능력과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서 위험한 의사결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성인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Furbey & Beyth-Marom, 1990).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빈번하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위의 의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청소년과 성인은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중요도 또는 바람직성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 어떤 행동을 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약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청소년들은 담배나 약물을 하지 않음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예를 들어, 친구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자신의 건강보다는 친구로부터의 인정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청소년의 의사결정을 성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이지만, 친구의 인정보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성인의 결정 역시 청소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위험한 행동을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이러한 위험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였는지를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안전하지 못한 성 관계를 통해 임신이나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잘못

된 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예를 들어,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험한 의사결정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위험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모델 중 Selman 등 (1992)의 발달적 모델에서는 여러 이론에서 다룬 다양한 요인으로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Selman 등은 위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예를 들어, 개인의 기질과 신경생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요인과 또래문화나 가족 문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구성 요소(예를 들어, 개인의 위험 행동에 관한 지식, 관리, 개인적 신념)로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Selman 등은 생물학적 요인(개인의 기질과 신경생리적 요소)과 사회문화적 요인(또래문화나 가족문화)은 위험 행동을 직접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심리사회적 구성요소에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위험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심리사회적 요소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생물학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이 극단적으로 강하여 독립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충동적인 성격 특성, 문제 있는 뇌 구조(생물학적 요인)나 성 윤리를 강조하지 않는 가정 또는 친구의 존재(사회문화적 요인)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구성 요소를 중재하지 않고 곧 바로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상철, 1998).

개인의 심리사회적 구성 요소는 생물학적 성향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개인의 생물학적 성숙이나 가족 환경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이들의 영향을 중재하여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개인이 위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 대인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위

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지, 신념, 동기 등이 직접적으로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elman, et al., 1992).

따라서 이 모델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개인의 심리사회적 구성 요인 모두를 고려해야만 한다. 즉 위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물학적 요소로서 개인의 충동적인 성격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훈련(예를 들어, 충동성 조절 훈련 등), 긍정적인 가족 문화와 친구 문화를 형성하려는 사회 환경적 노력(예를 들어,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Selman과 그의 동료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신경, 생리적 이상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결핍에 의해 위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지루함과 중압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경험과 긴장감을 수반하는 위험행동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사회적 구성 요인으로는 위험 행동에 대한 지식과 관리기술, 그리고 개인의 의지 등이 포함된다. 우선 위험 행동에 대한 지식이란 개인이 위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실적 지식이나 개념적 이해를 말한다(한상철, 1998). 혼전 성 관계가 본인과 상대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경우 위험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위험 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Glynn, Leventhal & Hirschman, 1985).

관리기술이란 위험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기술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위험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상철, 1998). 좋은 관리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위험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개인적 의미는 위험 행동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 태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 행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 상황에서 위험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위험한 성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이 위험한 성 행동으로 어떠한 부정적 결과(예를 들어,性病, 미혼모, 낙태 등)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또 대인관계 기술이나 문제해결 훈련, 그리고 위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신념과 가치 등을 변화시켜 주는 인지적, 정서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

3. 청소년기 '위험한 성' 행동 유형과 특징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적 성숙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성 정체감과 성 행동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성숙만큼 발달되지 못한 인지적,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 이러한 행동은 종종 위험한 성 행동(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임신, 낙태,性病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위험한 성 행동 비율과 그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혼전 성 관계에 대해 문제시하였던 과거의 규범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성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위험한 성 행동인 원하지 않는 성관계, 임신,性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성 의식과 행동을 통해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1) 원하지 않는 성 관계

어린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특히 청소년들이 성 피해의 대상(예를 들어, 성희롱, 폭력, 학대, 강간 등)이 되는 비율이 높다. 음란한 농담, 몸짓, 그리고 원하지 않는 성 관계 등을 포함하는 성 폭력은 특히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약한 성 폭력은 일상생활에서 대수롭지 않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Trigg, Davis, Kirschner, Marolis, & Wittenstrom, 1995, : 22-31). 고등학생들의 성 경험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85%의 여학생과 76%의 남학생이 원하지 않는 성 경험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러한 경험을 당한 여대생의 비율이 70.4%나 되었다(Muehlenhard & Linton, 1987).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성 관계에 관한 국내의 연구 중 김용미와 김현옥(2001)의 연구에서는 27.8%의 고교생들이 시각적 및 언어적 성적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조사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수치는 사실 실제로 발생 하는 원하지 않는 성 관계의 극히 일부분만을 말해주고 있다. 원치 않는 성 관계로 피해를 입은 많은 청소년들은 수치감과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수를 감안한다면 피해자의 수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성 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성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종종 학업을 그만두기도 하며, 정서적 장애와 심지어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Bargley, Bolitho, & Bertrand, 1997). 매춘부를 대상으로 한

Silbert와 Pines(1983)의 연구에 의하면, 매춘부의 46%가 청소년기에 평균 2명의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농락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70%가 육체적 상해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하지 않는 성 관계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영향력도 크다. 따라서 이에 관한 개입과 대처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하지 않는 성 관계에 관한 연구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기에 이에 관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성 관계는 주로 이성과의 교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성과 데이트를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교제의 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어린 나이의 성 경험은 원치 않는 성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예를 들어, Abbey, McAuslan, & Ross, 1998; Malamuth, Linz, Heavey, Barnes, & Acker, 1995 등). 이성 교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성 경험을 한 청소년들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성 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를 거절하면 친밀한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나, 좋아하는 상대가 자기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친밀감이나 애정, 그리고 성 행동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비록 최근 들어 남자 청소년들이 동성애자나 여성의 강요로 성적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남자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선도하거나 강요하고, 여자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에 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남성의 성 의식과 행동 표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적 가치관으로 인해, 성숙되지 못한 남자 청소년들은 성 행동의 강요를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또 원하지 않는 성 관계를

가진 여자 청소년들의 상대가 자기보다 연령이 많은 남자 청소년이거나 성인인 경우가 많다(Navorra, 1996, : B1-B10). 이는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다 성숙한 남자가 원하지 않는 성 관계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성 관계를 감소하고 예방하는 노력이나 프로그램에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술과 원치 않는 성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Abbey, McAuslan 그리고 Ross(1998)는 원하지 않는 성 관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50% 이상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 행동을 강요한 가해자의 50% 이상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고하였다. Koss와 Dinero(1989)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피해자의 술 남용은 어린시절의 성 학대 경험, 현재의 개방적인 성 태도와 활발한 성 행동 등과 함께 원치 않는 성 관계로 인한 피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성 관계와 관련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또래 관계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이 이성 교제나 성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주변의 친구나 또래가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하지 않는 성 관계의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공개적으로 여성을 유혹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상대와의 성 접촉을 시도를 하는 것은 친구나 동료의 인정과 존경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Jaffe, 1998, pp. 318-355). 이러한 청소년들의 친구들은 대개 남성 중심적인 성 행동을 보이며, “남자는 필요하다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성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활발한 성 행동을 하는 친구의 존재는

원하지 않는 성 관계의 가해 및 피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Stephenson, 1992 : 57-73).

가족 구성원도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애착 수준이 높고, 갈등이 적고, 부모가 적절한 수준에서 자녀들을 감독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적게 한다.(예를 들어, Small & Kerns, 1993; Smiths, 1997). 또한 가족 구성원간의 폭력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폭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도 폭력적인 성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와 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성 태도와 성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의 위험한 성 행동의 예방과 감소에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성 행동은 그것이 발생할 당시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임상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성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황적 요인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상황에서 한쪽 혹은 양쪽 파트너들이 분위기에 이끌려 어느 수준까지의 성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그 이상의 성 접촉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쪽 파트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이상의 성 접촉을 포함한 원하지 않는 성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학생들의 혼전 성 행동에서 데이트 분위기를 포함한 상황적 변수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 대학생들의 성 행동과는 매우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윤경자, 1995, 2002).

2) 청소년 임신

임신과 낙태, 미혼모 등의 문제는 위험한 성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들 중 하나로서, 청소년의 성 행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급격히 나타나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변화는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중에 임신을 경험할 경우 부작용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청소년 임신은 정상적인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심리,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Rodriguez와 Moore(1995)는 임신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계가 흐려지는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임신은 임신 그 자체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뿐만 아니라 임신을 한 청소년 개인의 학교 중퇴나 학업 실패, 그리고 구직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박탈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상대적 박탈은 세대로 전이되어진다(Stevens-Simons & White, 1991). 즉 청소년이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또 청소년이 낳는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다. 대개 십대 산모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미숙하거나 체중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십대 산모의 아이들은 열악한 건강 상태와 부모의 애정이나 복지, 교육을 받을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일탈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또 몇몇 연구들은 미혼모의 아이가 다시 미혼모가 되는 비율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예를 들어, Strobino, Ensminger, Nanda, & Young,

1992). 따라서 청소년 임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은 지금 당장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회에서도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청소년의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달적, 사회적, 심리적, 행동적, 정서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여자 청소년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친구와의 교제,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업 실패의 경험,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경험, 술이나 약물 같은 위험 행동의 추구,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의 십대 임신 경험 등이 관련 요인으로 언급된다 (Steven-simon & Reichert, 1994; Stevens-simon, Beach, & Eagar, 1993; Brooks-Gunn & Chase-Lansdale, 1991; Stevens-simon, & Kaplan, 1993; Kelly, Stevens-Simon, Singer, & Cox, 1994 등).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성숙

우선 청소년의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체적 성숙 정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구들에 비해 일찍 성숙된 여자 청소년들이 성 경험을 일찍 하게 되고 임신할 가능성이 높다. 동료에 비해 일찍 성숙된 청소년들은 성인의 성적 정체감을 가지게 되지만, 신체적 성숙에 비해 인지적으로 덜 성숙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Steven-Simon & Reichert, 1994; Cox, Emans, & Bithoney, 1993). 이와 관련하여 인지적으로 성숙된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 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다.

② 가정 문제

가정 기능의 붕괴, 해체 그리고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임신과 관련된다. 특히 Steven-Simon과 Reichert(1994)는 아동기의 성적 학대

경험은 청소년기 임신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기에 성적 학대를 받거나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는 원인이 개인의 내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를 당하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적응적이거나 약물을 남용하는 가족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 부족 등이 아동기 성 학대를 유발하는 것처럼 유사한 개인적, 사회적 조건이 청소년기 임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 긍정적인 모녀 관계는 딸의 조기 성 행동을 감소시키고 임신의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Casper, 1990).

③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와 학업에 덜 관여하는 청소년일수록 임신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다. 학업이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학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은 다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획득하고자 한다. 즉 이들은 빠른 성 행동이나 임신을 포함한 일탈적 행위를 통해 보상을 얻고자 한다(Spear, 1997). 반면 학교와 학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빠른 성 행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며, 성 행동을 하더라도 피임을 통해 임신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Hanson, Myers, & Ginsburg, 1987).

④ 사회적 영향

종종 여자 청소년들은 임신 예방에 대한 책임을 상대인 남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남자 청소년들의 성 행동을 주제로 한 몇몇 연구에 의하면(남자 청소년의 성 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적지만), 이들은 피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임은 당연히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오히려 임신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었다(Marsiglio, 1993). 남자 청소년들의 이러한 사고는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성 의식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학교를 중퇴한 여자 청소년, 문제 있는 가정, 미혼모의 아이, 이미 십대에 임신을 경험한 여자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임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기회의 부족으로 임신을 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부족하며,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문화적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Furstenberg(1992)와 Klerman(1993)은 이들에게 임신이나 아이의 출산은 부모나 성인의 권위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임신을 한 청소년들은 대개 부모나 성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기도 함).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은 임신이나 출산을 통해 자기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주변 친구나 동료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더 더욱 놀라운 것은 청소년의 임신을 대수롭지 않게(혹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주변의 분위기에서 성장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만약 임신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남성에게 매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임신을 피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Rainey, et al., 1993). 이러한 사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과 성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⑤ 정서적 영향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성 교제를 통해 성 행동의 강도를 증가시켜 나가는데, 그 속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지고 있다(Smith & Udry, 1985). 즉 단순하고 가벼운 성 행동에서 성 관계로 발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성적 자아 개념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성 관계를 가지며, 임신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Winter, 1988). 또한 어떤 청소년들은 무엇인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을 하려고 한다. 이들은 자기가 출산한 아이는 자기를 항상 사랑해 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한다(Smith & Udry, 1985).

Zabin 등(1993)은 많은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 것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이러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피임 기구를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임신 위험성이 매우 높다(Rainey 등, 1993). 임신과 출산에 대해 일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임신과 출산으로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청소년들이 잘 모르거나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자신과 상대의 미래를 위해 임신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으로 활발한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성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물론 청소년들의 성 행동을 성인이 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성 관계를 가졌을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임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청소년들(특히 중, 후기 청소년기)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피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피임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피임 방법을 사용하

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성 관계로 인한 임신을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 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연구(Zabin, 등., 1991)에 의하면, 이들의 가장 일반적인 응답은 임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였으며, 다음으로 피임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부모에게 피임 기구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청소년들은 피임 기구를 미리 준비하여 성 관계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상대가 계획적인 성 관계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또 적은 비율의 응답으로는 피임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예를 들어, 나는 아직 임신하기에는 어렵다)이나, 피임 기구를 어디서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피임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피임과 피임 기구에 대한 지식이나 접근의 용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신에 대한 태도이며,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에 관한 지식이나 피임 기구의 접근 용이성에 초점을 둔 일반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임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왜 많은 청소년들이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Levinson, 1986), 청소년들의 잘못된 생각과 인지를 수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성병

성병의 감염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경제적 비용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성병 감염은 다른 위험한 성 행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

향을 받지만, 청소년들의 성병 감염을 등 그 실태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성병의 유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성병의 유형과 특징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성병은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매우 다양하다. 우선 임질은 가장 오래된 성병으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입, 목, 질, 자궁 경부, 자궁, 항문 등의 점막에서 자라는 임균 박테리아가 그 원인이다. 이 박테리아는 감염된 점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여성은 질의 점막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남성보다 감염률이 2배 정도 높다. 임질의 치료는 감염 초기에 페니실린이나 그 이외에 다른 항생제로 완치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감염에 의한 후유증이 심각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장애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임영식, 한상철, 2000 : 268-283)

매독은 파상균에 속하는 매독균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되는 성병으로, 온습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파상균은 성기나 항문, 구강 등을 통해 감염된다. 일반적인 감염 경로는 성적 접촉이지만, 이 밖에도 수혈에 의해, 그리고 임신 4개월 경 임부로부터 태아에게로 감염되기도 한다. 임신부가 4개월 이전에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받으면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이러한 매독의 발병률은 다른 성병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여, 심장, 척추, 눈, 뇌에 영향을 미쳐 실명, 마비, 정신이상, 그리고 죽음으로 까지 이어진다(Strong & Devault, 1997).

클라미디아는 임질이나 매독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가장 흔한 성병으로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이 성병은 감염률

이 매우 높은데, 여성의 70%가 한 번의 성 관계로 이 병에 감염될 수 있다. 남자는 감염 후 1-2주 내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성의 증상이 거의 없다(임영식, 한상철, 2000 : 268-283).

헤르페스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성병으로 주로 성 접촉에 의해 발병하지만, 좌변기, 목욕탕 의자, 타올 등에 의해 감염되기도 한다(Strong & Devault, 1997). 헤르페스의 증상은 성기 부근에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 그 외에도 발열, 두통, 허리 아래부분의 통증이 수반된다. 수포가 없어진 후에 바이러스는 잠복해 있다가 다시 나타난다. 바이러스가 신체에 잠복해 있는 동안 수포나 통증은 약하지만, 뇌나 신경계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러한 헤르페스는 임부로부터 태아에게 감염되어 뇌 손상이나 유아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orey, 1990). 아시클로비어 같은 약이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아직까지 헤르페스를 완치시키는 약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람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임영식, 한상철, 2000, : 268-283).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의해 감염되는 성병으로 최근에 발견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HIV에 감염되면 몇 단계의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AIDS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체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일단 병에 걸리면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AIDS는 주로 성교, 주사 바늘, 수혈을 통해 감염되고, 매독과 마찬가지로 임부로부터 태아에게 감염되기도 한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의 90%가 동성애 남성과 정맥 주사 사용자이지만, 최근 여성과 청소년에게서도 그리고 이성과의 성 관계를 통해서도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된다(Strong & Devault, 1997).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는 면역 체계 내의 T 세포를 공격하는 T 세포의 수가 감소하면 우리 인체는 감염에 매우 약하게 된다. 혈액 내의 T 세포의 수로서 초기, 중기, 후기가 구분된다. 초기에는 T 세포의

수가 충분해서 감염될 위험이 적고 증상도 거의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는 있다. 중기에는 T 세포의 수가 반으로 줄고 림프선이 붓고, 쉽게 피로하고, 체중이 줄고, 설사와 발열, 진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후기(AIDS의 발병 단계)에 T 세포의 수가 격감해서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렴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며,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 AIDS의 치료는 아직 불가능한 상태이며 HIV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AZT, DDI, DDC, D4T 등이 사용되고 있다(Cohen, 1996).

(2) 청소년의 성병 감염과 관련되는 요인

청소년의 성병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첫 번째 성 관계를 시작한 연령은 성병의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킨다(Rosenthal, Baro, Succop, COhen, & Stanberrrt, 1994). 즉 성 관계를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성병의 감염 위험성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성은 성 관계를 맺는 대상이 많은 청소년들이 성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추론한 관계이다. 왜냐하면 성 관계를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기동안 성 관계를 맺을 상대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5세에 성 관계를 맺기 시작한 여자 청소년은 20세에 성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에 비해 일생동안 4배나 많은 성 관계 대상을 갖는다는 보고도 있다(Cates, 1990). 어린 나이에 성 관계를 가질수록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성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위험한 성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빠른 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으로서는 동료에 비해 빠른 신체적 성숙, 어머니의 교육,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관계 등이 있다. 성 관계를 시작한 연령은 성병 감염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임신, 성폭력 등 다양한 위험 행동

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성병의 감염과 관련되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물학적 요인

성병의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인 연령은 개인의 생물학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초경을 시작한지 3-4년 정도 지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원형의 상피조직은 일종의 세포 유형(cell type)으로 자궁경관의 외벽을 둘러싸고 있다.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인해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세포 유형은 여러 층의 비늘 모양으로 된 상피 조직으로 결국 대체되지만, 이러한 변화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은 임질균과 트라코마에 의한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병원균은 원형의 상피 조직 세포의 표면에 쉽게 들러붙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말해 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안전하지 못한 성 행동은 성병의 감염 위험성은 가중 시킨다.

② 성병 발생율의 성차

성인 집단과 반대로 일반적인 성병에 대한 청소년들의 감염율은 성인 집단과 반대 현상을 보인다. 성인의 경우 대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감염율을 보이지만, 임질과 매독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그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ebster et al., 1993).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임신에 관한 연구 결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10대에 임신을 경험하는 대개의 청소년들의 상대는 주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이 많은 것처럼, 성병에 감염된 여자 청소년의 상대의 많은 비율이 청소년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신한 여자 청소년의 성 파트너의 연령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보다 나이가 6살 이상인 경우가 30%나 되었

다(Alan Guttmacher Institute, 1994, pp. 1-86). 이 조사 결과 역시 청소년의 성 문제 예방에 남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AIDS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감염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AIDS는 감염에서 임상적인 증후가 나타나기 까지 약 8-12년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발병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Bacchetti & Moss, 1989).

③ 개인적 요인

개인의 행동적 특성 역시 성병의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 관계를 시작한 연령과 성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의 숫자가 성병의 감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 역시 위험한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약물의 효과는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Jemmott & Jemmott, 1993). 특히 주사를 사용하여 약물을 투여할 경우, 매독이나 HIV 등과 같은 성병의 감염 위험율이 높아진다.

성 행동의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추론 능력, 학업에 대한 열망과 성취 수준, 종교적 관여, 개인의 자존심 수준 등도 영향을 미친다(Brooks-Gunn & Furstenberg, 1989; Green, Johnson, & Kaplan, 1992). 즉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학업에 대한 열망과 성취 수준이 높고, 자존심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위험한 성 행동에 적게 관여하게 되며 결국 성병의 감염 위험도 줄어든다고 하겠다.

④ 가정 요인

부모의 결혼 특히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의 자녀들은 일찍 위험한 성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성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

다. 또한 어머니의 조기 성 경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의 조기 성 경험, 부모와의 애정 결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리와 감독 소홀 등도 영향을 미친다(Brooks-Gunn & Furstenberg, 1989; Wu & Martinson, 1993).

Ⅲ. 청소년 성관련 위험행동 실태 및 남자 청소년의 성교육 요구분석

1. 청소년 성관련 위험행동 실태
2. 남자 청소년의 성교육 요구분석



III. 청소년 성관련 위험행동 실태 및 남자 청소년의 성교육 요구분석

서울 YMCA, 사랑의 전화 PC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사이버상담 중 성 상담이 각각 81%, 61.8%, 29.1%로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가 성과 관련된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상담내용분석에서도 성 문제가 상담 1순위로 나타나 흔히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이 학업 및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과는 달리 이에 대한 고민은 전체상담 중 단지 5.2%에 불과하여 현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고민은 성과 관련된 고민임을 알 수 있다(채현주, 2001 : 1).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남자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현실적 욕구인 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은 남자청소년들에게 더욱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자청소년들의 욕구에도 부응하지 못하여 곁돌고 있다. 향락업소의 발흥과 더불어 상업주의적 성문화, 남성위주의 폭력적 성문화가 무엇보다도 남자청소년들의 성 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남자청소년들은 성폭력 가해자나 잠재적 성 매수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남자청소년들에게 접근 가능한 '위험한 성'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작업으로써 먼저 남자청소년들의 성 관련 위험행동 실태와 남자 청소년의 성교육요구를 선행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조사연구결과로는 2000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²⁾,

2) 김혜원, 이해경(2000). 고등학교성교육지도지침서 설문지분석결과 서울 :

한국성문화연구소³⁾, 한국성폭력상담소⁴⁾, 청소년보호위원회⁵⁾ 등 주요기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만을 활용하였다.

1. 청소년 성 관련 위험행동 실태

1) 성관계 및 임신

청소년 이성교제가 증가되고 최초 성관계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개방적인 풍조, 향락적인 사회분위기, 건전한 이성교제나 피임 등에 대한 성교육의 부재 등으로 원치않는 10대 임신, 등교길 출산, 낙태, 미혼모 증가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박현이(2000)의 연구에 의하면, 1998년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의 경우 입소자의 55%가 10대 청소년들이며, 과거에는 18-19세의 비율이 가장 높던 것이 이제는 15-16세의 입소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홀트 아동복지회에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들도 1997년에 비해 1998년에는 20% 정도 늘어났고, 이 중 20세 이하의 미혼모가 61%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임신, 미혼모의 수치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과

교육인적자원부 여성정책담당관실. <http://www.moe.go.kr/Policy>.

- 3) 공세권 외(2000).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 성교육 접근모형 개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부설 한국성문화연구소. pp. 75-111.
이시백 외(2002). 보호시설 청소년을 위한 성건강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부설 한국성문화연구소. pp. 35-97.
- 4) 한국성폭력상담소(2000).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pp. 2-48.
- 5) 김상원, 이명숙(2000). 중학생의 성의식 조사 및 성교육자료집 개발 연구. 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pp. 10-43.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pp. 227-243.

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임신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어, 김혜원, 이해경, 2000; 김태근, 1998 등).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성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남자 청소년의 13.5%, 여자청소년의 8.1%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상대는 이성교제상대(74.4%)가 남녀청소년 모두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한 임신경험에 대하여 남자청소년의 2.2%, 여자청소년의 10.8%가 임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신횟수는 임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09명 중 1번이상(45.0%), 2번이상(25.7%), 4번이상(21.1%), 3번이상(8.3%) 순으로 임신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임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 성관계시 피임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84%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려가는 것이 부끄러워서(33.3%), 귀찮아서(21.2%), 준비를 못해서(19.2%), 상대가 원하지 않아서/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서(9.15), 사용법을 몰라서/기타(4.0%)로 응답하였다. 원하지 않는 임신의 해결방법으로는 낙태(76.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10.7%), 자연유산(8.0%), 낳아서 입양하였다(4.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성문화연구소의 연구에서도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3.5% (남자청소년13.5%, 여자청소년12.4%)가 임신한 경험이 있었다.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의료기관낙태(54.8%), 비의료기관낙태(6.8%), 성상대자와 헤어짐(9.5%), 그대로 방치(6.8%), 출산(8.2%), 기타(13.8%)로 응답하였다.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은 조기 성경험과 더불어 임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임신에 대한 대책마련은 극히 미흡하고, 임신 후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비의료기관낙태와 그대로 방치 등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대응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혼전임신이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10대 임신은 곧 낙태문제로 이어진다. 낙태가 불법인 관계로 정확한 통계산출은 어렵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낙태가 출산의 2배정도가 되고 이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3에 해당하기도 한다(한국성문화연구소, 2001 : 57).

아직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0대들의 조기 성관계 및 이로 인한 임신, 낙태, 미혼모 등의 문제는 청소년 건강에 큰 위협요소일 뿐 아니라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학업탈락, 사회적 낙인, 준비되지 못한 부모역할에서 오는 경제적 압박 등 청소년 개인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2) 음란매체 접촉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음란물 등의 비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성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6)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59.23%에 이른다. 이중 남자청소년의 76.75%, 여자청소년의 43.18%가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음란매체는 잡지(43.3%), 스포츠신문(33.4%), 만화(17.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매체들은 선정성, 폭력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내용들은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성충동, 모방충동에 대한 욕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 이해경(2000), 한국성문화연구소(2000), MBC 청소년 백서(2000)의 연구에서도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경험이 여자청소년보다 높다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결과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자주 접촉

하는 음란매체로는 영화·비디오(61.6%), 인터넷사이트(26.2%), 잡지/만화(10.3%), 기타(1.8%), 전화음성정보서비스(0.2%)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영화, 비디오(52.1%), 인터넷사이트(35.8%), 잡지나 만화(9.9%)의 순으로 음란매체를 이용하는 반면 여자청소년들의 경우는 영화·비디오(79.1%), 잡지나 만화(11.1%), 인터넷 사이트(8.3%)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성문화연구소(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주 접촉하는 음란매체로 남자청소년의 경우 음란비디오(90.2%), 음란만화(86.2%), 음란영화(83.3%), 음란컴퓨터, 통신(81.1%), 음란잡지(74.1%) 순이고,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음란비디오(67.4%), 음란영화(53.0%), 음란만화(46.8%), 음란잡지(24.0%), 음란컴퓨터, 통신(22.5%) 순이었다.

MBC 청소년백서(2000)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음란매체를 접촉하는 장소는 친구집(69.4%), 본인의 집(43.8%), 게임방/PC방(26.4%), 비디오방(8.8%), 만화가게(7.9%) 순으로 성별, 학년별 차이가 없었다.

즉 영상매체와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청소년들이 음란매체를 접할 기회가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으며 이러한 음란물이 유희문화로서 청소년 집단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00)가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보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호기심(52.26%), 신기한 내용이 많아서(18.8%), 주변친구들이 다 보기 때문에(16.24%) 순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친구들끼리 빌려주거나 반에서 모두 돌려보는 경우가 69%로 나타나 청소년들 사이에 이러한 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보는 기회는 기회가 될 때마다(36.0%), 동성친구들과 만나서 놀 때(17.8%),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15.0%), 우연히 보게 되거나 의도적으로 자주 보지 않는다는 기타 응답(26.8%)이었다. 모방행동의 유형으로는 집에서 혼자 몰래 해보았다(39.53%)가 가장 많았고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해보았다(27.91%), 모르는 사람에게 해보았다

(19.77%)순으로 남자청소년의 경우 혼자 집에서 몰래 해보았다(43.28%)와 혼자 모르는 사람에게 해보았다(20.9%)가 높게 응답되어 성비행과 음란물의 상관가능성을 시사한다.

음란물의 유해성은 관계나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생략되고 오로지 성기중심의 성행위만이 묘사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많은 음란물이 여성이 강간을 은근히 기대한다는 식의 강간신화(rape myth)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나 지극히 폭력적인 내용으로 구성됨으로서 분별능력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의 내용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오는 위험성과 함께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00)의 연구에서 이러한 모방행동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47%가 모방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성폭력 가해경험자 중 대부분인 95.56%가 이전에 음란물을 접촉했고, 성폭력 가해경험자의 47.5%가 모방행동을 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성폭력에 있어서 음란물의 악영향을 짐작케 한다.

결국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 접하는 음란물을 접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물론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고 여성이 강간을 바란다는 식의 왜곡된 성을 양산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이 음란물이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놀이 등의 유희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음란물을 접하는 시점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됨으로서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

3)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성 비행 문제는 양적증가와 더불어 특수강간, 윤간 등 점차 흉악해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1 상담현황 분석”에 따르면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 가해자가 8.9%로서 2000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가해자 연령별 분포

총계	성인	청소년 (14세-19세)	어린이	유아	미상
2,869건 (100.0%)	2,233건 (77.8%)	255건 (8.9%)	68건 (2.4%)	16건 (0.6%)	297건 (10.4%)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2002). 나눔터 제41호. pp. 8.

청소년들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김혜원, 이해경(2000)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2.6%로 이중 남자청소년의 경우 1.7%, 여자청소년은 3.5%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었다. 피해 당한 기간들은 일년에 1-2번에서 거의 매일까지 다양하였는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자청소년의 0.4%, 여자청소년의 0.7%가 거의 매일이나 한달에 1-2번 등 잦은 피해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반면 성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의 1.9%, 여자청소년의 1.4%가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6)의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전체의 11.36%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이 중 남자청소년의 피해는 6.97%, 여자청소년피해는 15.54%로 나타났고 이 중 35.51%는 자신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가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음이 암시되었다. 피해유형으로는 신체접촉(37.13%), 전화·통신에서의 음란성메시지(15.67%), 성기노출(14.74%), 지하철·버스에서의 추근거림(13.62%), 음담패설(8.58%), 기타(6.34%), 강간(3.92%) 순이었다. 피해상황의 경우 길가는 도중(36.6%)가 가장 높았으나 이성친구와 교제중(25.4%), 항상 잘 가는 곳에서 놀다가(1.3%), 집에 있다가(7.7%), 생일파티 등의 모임에서(6.3%)로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혹은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이긴 하지만 남자청소년 역시 성폭력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신체접촉 등의 성폭력 피해는 오히려 남자 청소년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연구에서는 여자중학생의 1.9%, 남자중학생의 1.4%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나 성추행 피해경험이 전체의 14.5%(여중생 20.4%/남중생 7.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은 자신보다 힘없는 어린아이와 동료 또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들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유아피해의 41.2%, 어린이 피해의 27.6%, 청소년 피해의 22.7%가 청소년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였다. 청소년의 가해 유형은 대부분 성추행으로 신체 접촉이 50.0%로 가장 높고 전화·통신을 통한 음란메시지(11.76%), 음담패설(17.65%), 강간(9.41%)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폭력의 가해유형이 신체접촉에 치우쳐 있으나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가해 유형으로 나타난다. 특히 성기노출, 지하철, 혹은 버스 안에서의 추근거림은 남학생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폭력의 가해 대상을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은 단지 19.5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아는 사람(80.49%)이며 이성친구(36.59%), 동성친구(19.51%), 동네아이들(14.63%) 순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 28).

즉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통념은 청소년 성폭력에서 허구로서 청소년 성폭력의 피해대상은 이성친구는 물론 동성친구, 자신보다 어린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남자청소년 역시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4) 청소년 성 매매

2001년 8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도 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증가추세에 있다.

청소년상담원(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생 100명 중 2명이 성 매매를 경험하였고, 성 매매에 대한 유혹을 받은 경험이 1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성 매매의 전형적인 형태는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이 청소년의 성을 사고 싶어하는 어른과 인터넷 채팅 등의 방법을 통해 성 매매의 가격을 정하고 서로 만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무 것도 모른 채 1회 성 관계 후 헤어지는 1회성 청소년 윤락, 1회성 청소년 매춘이다.

<표 III-2> 청소년 성매매 관련 청소년 연령

연 령	인 원(%)
13세	14(7.8)
14세	11(6.2)
15세	40(22.3)
16세	61(34)
17세	33(18.5)
18세	20(11.2)
계	179(100.0)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pp. 237.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성 매매 대상 청소년연령이 만 15-17세, 즉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의 청소년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성에 관한 호기심이 왕성하고 아직 성 지식과 변별능력이 부족한 시기의 청소년이 대부분으로 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이 64.2%, 중퇴청소년이 64.2%로 비학생 중 다른 직종에 취업중인 청소년은 거의 없어 취업하지 못한 비학생과 일시적으로 용돈마련이 필요한 학생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청소년 성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성 매매에 유입되는 가장 큰 동기는 용돈 마련(44.7%), 가출생활비 (36.9%), 호기심(8.4%), 우발적(3.3%), 기타(6.7%)로 매매 대상청소년들이 성 매매를 하나의 용돈마련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성 매매 대상 청소년들의 84.4%가 이미 남자친구들과 성 경험이 있으며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도 65%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성 매매 문제의 사회적 초점은 여자 청소년의 성이 남자 어른에 의해 매수되는 데 있다. 황금만능주의와 향락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남성들의 왜곡된 성문화가 쉽게 용돈 벌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결합하여 빚어진 사회적 결과가 청소년 성 매매이다. 성 매매에 가담하는 여자 청소년들 대부분이 그 이전에 성 폭력, 또는 남자친구와의 성 관계 경험이 있다. 가출과 생활비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을 팔고 있는 것이다.

남자청소년들은 현재 경제능력의 제약 때문에 성 매수의 주요 주체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 매매의 잠재적 수요자로서, 성 매수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사창가를 배회하거나 출입하는 남자청소년들의 존재를 통해 예견할 수 있다 (본 연구, 3쪽 참조).

YMCA(2000)가 남자청소년 918명을 대상으로 성 행태 조사에서 성 경험이 있는 17.9%의 청소년 중 상대방이 매춘여성인 경우가 3.8%로

나타나 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성 매매가 성인문화 뿐 아니라 남자청소년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전체 고등학생 응답자 중 1%가 돈을 주고 성관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돈을 주고 성 관계를 하게 된 경로로는 PC통신,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선배 소개로, 아르바이트 업소 소개가 각각 22.2%였고 주변사람·상대의 요구가 11.1%였다.

성관계가 일어난 장소는 사창가(44.4%), 여관 및 숙박업소(33.3%), 상대방 혹은 나의 집(11.1%), 비디오방(4.1%)였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연령은 20대(44.4%), 30대(33.3%), 10대(22.2%) 순으로 다양하였다.

청소년 성 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청소년 성 보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남성의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잠재적 성 매수세력인 남자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2. 남자 청소년의 성교육 요구분석

늘어나는 청소년 성위험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개입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다. 보다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먼저 여자청소년들과는 달리 남자청소년들만이 고유하게 경험하는 성고민이 무엇이고 성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남자청소년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성고민을 (1)신체 변화, (2)성충동, (3)성행위, (4)성정체성, (5)성건강, (6)자위행위, (7)매매춘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남자청소년의 성고민

(1) 신체변화

청소년의 성장·발달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히 빨라짐으로 남성의 경우 11세내지 13세, 여성의 경우 8세내지 11세 사이에 70% 내외가 사춘기에 진입하고(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 1) 이러한 신체변화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성고민의 순위를 매기게 하였을 때 남녀 전체의 1위 고민은 '성적성숙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41.8%)'였다. 아래의 <표Ⅲ-3>에서 이차성징의 경험유무, 경험시기를 학교별,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과거에 비해 2차성징의 시작 연령이 낮아졌고 남자청소년의 신체발달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더 늦게 시작하여 더 늦게 끝나며 초등,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시기, 특히 중학교 2학년에서 가장 많은 신체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이차성징

*는 빈도, **는 비율%임.

문항 성별	신체 변화	경험유무		시작시기																				
		없다	있다	총	학 년						총	학 년						총	학 년					
					1	2	3	4	5	6		1	2	3					1	2	3			
남 자	음성 변화	150* (15.3)**	830 (84.7)	64 (7.8)	0 (0.0)	0 (0.0)	0 (0.0)	4 (6.8)	9 (15.3)	46 (78.0)	677 (82.7)	149 (23.7)	317 (50.4)	163 (25.9)	31 (9.9)	69 (88.5)	8 (10.3)	1 (1.3)						
	체모 발달	15 (1.5)	971 (98.5)	70 (7.8)	0 (0.0)	1 (1.5)	1 (1.5)	1 (1.5)	11 (16.4)	53 (79.1)	726 (75.5)	156 (23.0)	283 (41.7)	240 (35.3)	166 (17.3)	130 (84.4)	21 (13.6)	3 (1.9)						
	몽정 시작	233 (24.0)	702 (75.1)	51 (7.4)	10 (21.7)	12 (26.1)	5 (10.9)	0 (0.0)	4 (8.7)	15 (32.6)	536 (61.1)	153 (31.9)	189 (39.5)	137 (28.6)	79 (11.5)	42 (55.3)	17 (22.4)	17 (22.4)						
여 자	유방/ 유두 발달	26 (2.7)	930 (97.8)	33 (3.2)	0 (0.0)	1 (0.3)	5 (1.6)	28 (8.9)	74 (23.5)	207 (65.7)	554 (60.4)	259 (54.5)	162 (34.1)	54 (11.4)	30 (3.3)	18 (66.7)	6 (22.2)	3 (11.1)						
	체모 발달	37 (3.9)	917 (96.1)	25 (2.4)	0 (0.0)	1 (1.4)	0 (0.0)	2 (2.8)	18 (25.4)	50 (70.4)	725 (60.8)	233 (36.6)	245 (38.5)	159 (25.0)	95 (11.8)	63 (74.1)	14 (16.5)	8 (9.4)						
	초경	13 (1.3)	975 (98.7)	214 (21.4)	96 (37.1)	69 (26.6)	33 (12.7)	2 (0.8)	16 (6.2)	43 (16.6)	641 (66.1)	196 (38.1)	191 (37.2)	127 (24.7)	15 (1.5)	6 (50.0)	0 (0.0)	6 (50.0)						

출처 : 김혜원, 이해경(2001).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pp. 37.

남자청소년은 성호르몬의 발달로 음경과 고환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시작으로 몽정, 유정, 사정, 발기, 성기발육, 체모, 수염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겪음으로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서우성(1993)의 연구에서 남녀 중·고등학생들의 초경과 몽정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불안하다(30%), 아무렇지도 않다(28%), 기뻐다(19%)로 응답하여 상당수의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년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청소년 상담 중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 질문 등이 많은 것도 이러한 불안한 심리상태와 관련된다.

특히 남자청소년들은 성기크기, 발기, 몽정 등에 따른 수치감,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음경이 너무 작거나 크다, 너무 가늘거나 굵다든지, 또는 발기했을 때의 각도가 너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등이 고민거리로 자리잡게 된다. 남자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기 크기에 집착하고 남과 비교하여 불만족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기가 커야 정력적이고 여성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남성다움과 직결된다는 등의 잘못된 성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성충동이 왕성해지고 신체적으로는 생식능력을 갖게 되지만 실제적인 성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매우 큰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한다.

정확한 신체발달에 대한 성지식이 부족할 경우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정체체감 형성과 긍정적인 신체상(body image)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전문가에 의한 성교육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함으로서 남자청소년들로 하여금 신체변화와 그와 관련된 정확한 성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성충동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36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46.8%의 청소년이 '성충동을 가끔 또는 자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53.8%로 여자청소년(22.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 학생이 비수도권 학생보다 더 많은 성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7)의 연구에서도 성충동을 느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15.88%에 불과하고 남자청소년의 경우 4.78%에 불과해 성충동의 문제는 남자청소년 대부분이 느끼는 성고민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남녀의 성충동에 대하여 61.11%의 청소년들이 남자가 여자보다 성충동이 강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자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27.44%)가 여성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16.54%)보다 높아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남성의 성충동을 여성의 성충동에 비해 억제하기 힘든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성충동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음란물을 보았을 때(40.08%), 잘생긴 여성을 보았을 때(14.27%),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14.04%), 선정적인 차림의 여성을 보았을 때(10.48%), 성적공상에 빠질 때(9.19%), 이성과 몸이 스칠 때(5.81%), 친구의 성경험을 들었을 때(3.31%) 순이었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선정적인 차림의 여성을 보았을 때'에 대해 남자청소년이 17.81%로 여자청소년(2.2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0)과 심순석(2001)의 연구에서도 음란물, 혹은 선정적인 차림의 옷차림 등 남자청소년들이 시각적인 자극에 많은 성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청소년의 시각차이는 '선정적인 옷차림의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과 연결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6)의 연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려는 것이다'에 대해 남자청소년의 33.24%와 가해 경험자의 과반수가 넘는

53.33%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여자청소년(18.27%)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충동을 느낄 때 해결방식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연구에서는 ‘그냥 참는다’가 가장 많았고, ‘운동·취미활동으로 해소(15.2%)’, ‘자위(3.5%)’ 순으로 자신의 성충동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문화연구소(1998)의 조사에서는 성충동은 시중에 범람하는 각종 인쇄매체와 TV, 비디오의 야한 장면, 포르노에 의해서 반응한다고 나타났고 이러한 성충동 해소는 자위행위(49.9%), 그냥 참는다(46.3%)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00)의 연구에서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냥 참는다(50.6%)’, ‘운동·취미활동으로 해소(20.01%)’ 비율이 높고 남자청소년의 경우 자위/음란비디오를 통해 해소하는 비율이 각각 11.95%, 9%로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성충동을 느끼는 정도와 해결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남자청소년들은 시중에 범람하는 음란매체들의 성적 자극을 통해 성충동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성충동을 그냥 참거나 자위 등으로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남성의 성충동은 본능으로서 생물학적으로 참기 힘든 것이라는 왜곡된 의식을 수용함으로써 성폭력 등의 일탈된 방식으로 표출할 위험성도 잠재한 것으로 보인다.

(3) 성행위

청소년의 성관련 위험행동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을 증가, 퇴폐, 향락적인 성 산업이 성황인 사회분위기 등으로 10대 청소년의 성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성문화연구소(2000)의 연구결과 남녀 고등학생 중 전체의 20.3%가 성교경험이 있었고, 이 중 남자청소년의 성경험비율(33.1%)이

여자청소년(13.2%)으로 남자청소년의 성행위 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8)의 조사에서는 남자중학생의 1.4%, 남자고등학생의 11.7%가 성경험이 있었고, 가족보건복지협회(1996) 조사 결과에서도 남자고등학생의 16.2%가 성경험이 있었다.

즉 청소년의 성경험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 방법마다 표본에 차이가 있어 대표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의 성경험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제약이나 관습을 통한 여성에 대한 행동제약이 남성에 비해 큰데 반해 남성에게는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남녀청소년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이성교제시 남녀청소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신체접촉에 대한 허용도에서 차이로 나타난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7)의 연구에서 이성교제시 가능한 신체접촉에 대해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손잡기'에 있어서는 남녀청소년 모두 97.77%의 거의 대부분의 높은 수용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몸만지기와 성관계 등의 보다 직접적인 성행위, 성교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32.03%), 여자청소년(13.38%)로 남자청소년들의 허용도가 훨씬 높았다. 특히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몸만지기와 성관계에서 가해 무경험자보다 훨씬 높은 수용도(가해청소년33.33%, 일반청소년 10.86%, 가해청소년31.12%, 일반청소년8.6%)를 나타내 이성교제시 가능한 신체접촉에 대한 수용도에 따라 실제 행위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표 III-4> 남녀고등학생의 성행위 관련 이유

구분		남	여	전체
성행위를 한 이유	호기심	43(34.7)	17(18.9)	60(28.0)
	사랑	32(25.8)	35(38.9)	67(31.3)
	성욕	30(24.2)	8(8.9)	38(17.8)
	상대방의 강요	6(4.8)	26(28.9)	32(15.0)
	친구에게 자랑	3(2.4)	1(1.1)	4(1.9)
	기타	10(8.1)	3(3.3)	13(6.1)
	계	124(100.0)	90(100.0)	214(100.0)
성행위를 안한 이유	부도덕	51(21.4)	83(16.0)	134(17.7)
	순결	30(12.6)	186(35.8)	216(28.5)
	성병	9(3.8)	5(1.0)	14(1.8)
	임신	23(9.7)	128(24.7)	151(19.9)
	상대가 없어서	90(37.8)	23(4.4)	113(14.9)
	기타	35(14.7)	94(18.1)	129(17.0)
	계	238(100.0)	519(100.0)	757(100.0)

출처 : 공세권 외(2000). 학교 교육을 통한 체계적 성교육접근모형 개발. 한국성문화연구소 pp. 93.

<표III-4>에 의하면 성교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남자청소년의 경우 호기심(34.7%)과 성욕(24.2%)이 높아 여자청소년들이 사랑(38.9%), 상대방의 강요(28.95)와 차이를 보이고 성교 경험이 없는 이유에 있어서도 남자청소년들은 단순히 '상대방이 없어서(37.8%)'가 월등히 높아 여자청소년들의 순결(35.8%), 임신(24.7%) 이유와 대조를 이룬다.

즉 우리사회가 남성 보다 여성에게 순결을 강조하고 남성의 성충동에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남자청소년들이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남녀의 사회적, 혹은 심리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는 작게는 이성교제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보다 심각하게는 상대방의 성적 의견을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성폭력 등의 일탈행동으로 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자청소년에 있어 성행위를 가볍거나 쉽게 대하는 인식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성행위시 상대방의 성적 의사결정권

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 남녀간 의사소통기술 등의 내용이 성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성정체감(자아 성 만족도)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녀 중학생의 72.9%가 자신의 성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6.9%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의 자아 성 만족도(82.1%)가 여자청소년(65.2%)보다 월등히 높았고 불만족도 역시 3.0%에 불과하였다. 다시 태어나기 원하는 성은 남자청소년(49.8%), 여자청소년(47.7%), 반대의 성으로 태어나고 싶은 비율은 여자청소년(47.7%), 남자청소년(25.4%)였다. 이는 남자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남성선호 및 가부장적 성문화의 성적 우월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성차에 대한 강조는 획일적인 성역할 구분,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편견으로 남자청소년들에게 남성다움에 대한 압력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교육부(1999)의 조사결과 '남자애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울지 못해요, 울면 왜 우느냐고 하면 더 다시 때려요. 아파서 울고 싶어도 꼭 참아야 해요, 그런데 여자가 울면 화장실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해요, 남자를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지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럼 남자청소년들은 남성다움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남성성과 동떨어질 경우 주류문화에서 소외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

교육부(1999)의 연구결과 여자청소년들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반해 남자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남성의 성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능동적이고 여성의 성이 소극적이고 순종적, 방어적이므로 남성이 성행위의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야 한다는 남성콤플렉스를 양산할 수도 있다. 이로써 여성을 하나의 의견을 가진 동일한 주체로 인

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성의 'no'를 'no'로 받아들이지 않아 자신의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 자신이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도 이와 관련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청소년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으로 형성된 강한 남성성에 대한 동경으로 자신의 피해경험에 대해 여성 피해자와는 또다른 종류의 수치감을 경험함으로써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00) 연구결과 전체 중학생 응답자의 30% 이상이 '여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아니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특히 성폭력 가해경험자의 62.22%가 여성의 거부를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관념은 성폭력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버스, 지하철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성추행에 대한 허용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즉 남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성차, 성역할 고정관념, 강한 남성다움의 허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현상적으로는 잘못된 성의식에서 기인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남자청소년의 남성다워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와짐으로써 전인적인 삶이 가능하게 된다.

(5) 성건강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청소년 중 성병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의 1.2%였고 이중 남자 청소년 1.9%, 여자청소년이 0.5% 였다. 성병감염 횟수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1번(56.3%), 2번(25.0%), 4번이상(12.5%), 3번(6.3%) 순이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1번(80%), 3번(20%) 순이었다. 성병감염시 해결하는 방식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18.8%), 친구들/부모님이 각각

25%, 기타가 각각 18.8%, 선생님·상담소(12.5%)였고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60.0%), 부모/선생님·상담소가 각각 20%, 친구(0%) 순이었다.

김태근(1997)의 연구에서는 성병경험률이 11.0%,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0.7%로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20명의 청소년 중 1명이 성병에 감염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한국성문화연구소, 2001 : 58에서 재인용)는 보고와 10대 성경험의 증가, 성교시 콘돔 등의 피임 비율이 낮은 것 등으로 볼 때 성병에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에 대한 호기심, 성충동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보다 많음으로 성건강에 좀 더 취약하다.

종합하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성병에 감염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청소년들보다 성병 치료에 적극적이고 성병감염시 또래들과 정보 교류 및 도움을 진밀히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 자위행위

자위행위는 청소년기 가장 많이 행해지는 성 행동이자 성고민의 하나이다. 한국성문화연구소(2000)의 연구에 의하면 자위를 처음 경험한 평균연령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14.58세로 나타났다. 자위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1.5%이며 남자청소년이 78.4%, 여자청소년이 5.4%로 남자청소년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위를 하게 되는 이유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호기심(64.8%), 성욕(23.6%), 친구강요(5.3%), 친구에게 자랑(0.7%), 기타(5.6%) 순이었고,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호기심(41.0%), 성욕(35.9%), 친구강요(2.6%), 친구에게 자랑(2.6%), 기타(17.9%)로 조사되었다.

김혜원, 이해경(2000)의 조사에서도 전국의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

생의 36.1%가 자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자청소년은 67.3%, 여자청소년 5.6%로 남자청소년의 자위경험이 훨씬 높았다. 자위행위의 횟수는 남녀 모두 1달에 한두번이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번 순이었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1달에 1-2번이 45.6%, 일주일에 1-2번(32.5%)였고, 여자청소년은 1달에 한두번(56.1%), 일주일에 1-2번(26.8%)로 나타났다.

즉 자위행위는 성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자연스런 생리현상으로 대부분의 남자청소년에게서 보편적으로 경험되고 있다. 그러나 자위행위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예컨대 자위를 하면 장님, 사팔이가 된다, 정신병, 간질병에 걸린다. 정액이 고갈된다 등을 청소년들이 사실로 오인하고 받아들여 각종 청소년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나 강박적인 자위행위에서 오는 신체이상, 정상적인 생활의 불가 등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 자위행위를 하나의 자연스런 생리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통념을 교정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필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성에 대한 호기심은 왕성해지지만 실제적인 성행위가 제한되는 데서 오는 성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대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성고민 해결방법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학교 성교육 시간에 참여하기’, ‘기성세대의 도움을 받는다’는 연구(김혜원, 이해경, 2000) 결과도 있는 반면 더 많은 연구결과들에서는 ‘친구’ 혹은 ‘스스로 해결’ 등 청소년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한다(이문희, 1993 : 한국성문화연구소, 2000 : 채현주, 2001) 등 기성세대나 학교성교육 보다는 스스로, 혹은 또래와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성문화연구소(2000)가 남녀 고등학생에게 성고민 해결방법을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남자청소년의 경우 친구(81.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책/만화/잡지/컴퓨터(77.4%),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35.5%), 부모(28.0%), 교사와 종교/전문상담원 각각 5.4% 순이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도 친구(82.0%), 책/만화/잡지/컴퓨터(46.8%),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39.5%), 부모(16.5%), 교사(14.2%), 종교/전문상담원(8.3%), 의료기관(2.3%)로 비슷한 순위를 나타냈으나 교사/종교/전문상담원에 대한 의논비율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차이점이다.

즉 청소년들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래와 상의하거나 혼자서 시간이 경과되기를 바라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고민 내용별로 실업계 남녀고등학생의 성고민 해결방법을 알아본 채현주(2001)의 연구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혼자 해결하는 빈도가 높다고 응답한 고민내용은 자위행위(64.5%), 성충동(64.8%), 성적체감(78.6%) 영역이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고민을 혼자 해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남62.9%, 여 53.7%),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싫어서(남22.3%, 여41.0%), 상담에 대한 부정적 사고(남10.3%, 여6.1%),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남 1.9%, 여4.1%), 기타(남2.6%, 여 3.4%)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62.9%)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싫어서(23.3%)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공유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또래문화 사이에 성적담론이 넘치고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성적인 고민은 그러한 담론에서 배제되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혼자 고립되어 해결하는 특징을 보인다.

청소년들의 이같은 성고민 해결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에 대해 김혜원, 이해경(2000)이 5점 척도⁶⁾으로 측정한 결과 친구/선후배와 이야기하기(3.16), 시간이 해결(2.79), 학교 성교육 참여(2.69), 성관련 책보기(2.67), PC통신(2.43), 상담기관(2.16), 선생/친인척/이웃(2.09)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미흡한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친구/선후배와의 의논’ 역시 청소년 또래집단이 얼마나 정확한 성지식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비효과적인 도움은 물론 잘못된 지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고민을 믿고 해결할 수 있는 학교, 혹은 지역사회 차원,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어진다.

3) 남자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

(1) 지금까지의 성교육경험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를 보면 전체 청소년의 94%가 과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남녀간 성교육경험 유무 빈도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성교육경험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받았던 성교육은 내용과 운영상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전에 받았던 성교육 내용으로는 남녀 청소년 모두 사춘기의 신체/심리적인 변화(86.5%)이 월등히 높았다. 이 밖에 임신·피임(59.5%), 이성교제(44.6%), 가치관·태도(42.5%), 자위(29.8%), 성역할(28.8%), 성건강(28.3%), 성적 공상·충동(24.5%), 성교(22.7%) 등의 순이었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청소년이 성적공상·충동, 자위, 성

6) 1점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점 : 도움이 되지 않았다. 3점 : 그저 그랬다. 4점 : 조금 도움이 되었다. 5점 : 매우 도움이 되었다.

건강, 성교, 이상성행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았었고, 여자청소년은 신체/심리적 변화, 피임과 임신에 대하여 약간 많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심리적 변화에 치중되고 성적 공상 및 성적 충동, 자위, 성기 위생 및 성건강, 이성간 키스나 애무, 이성간 성교, 비정상적인 성행동, 성역할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 기회를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이해경, 2000: <http://www.moe.go.kr/Policy>).

한국성문화연구소(2000)가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가장 많이 받은 성교육 내용으로 임신(72.2%), 월경(57.8%), 피임방법(49.8%), 에이즈(47.95%), 성병(32.3%) 순으로서 심리적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 가치관 영역에 비해 해부 생리위주의 생리적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6)의 남녀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내용은 남녀의 몸의 구조(69.29%), 임신과 분만(12.98%), 남녀의 역할(8.94%), 성병과 예방책(4.61%), 자위(0.94%), 피임(0.29%), 기타(2.96%)로 해부/생리 영역에 치중되어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은 난소, 난자, 자궁 등의 역할, 월경, 임신에 대하여, 남자청소년은 남성 호르몬, 정자, 정소의 역할을 주로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성교육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청각자료(74.3%)가 가장 많았고 이밖에 강의식(38.7%), 사례제시(7.4%), 책자교육(6.0%), 토론식(4.8%) 순으로 시청각 자료와 강의식의 방법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성문화연구소(2000)의 연구에서도 성교육시 가장 많이 받았던 방법은 강의식 수업(52.9%), 토의 및 토론(23.0%), 소그룹토의(18.9%), 문답식 수업(16.0%), 신문 및 자료 스크랩(10.4%), 역할극(3.0%)였다. 성교육시 접한 매체로는 비디오(68.0%), 유인물(33.6%), 영화(14.5%), 피임도구모형(12.2%), 인터넷(8.2%), 인체모형(7.7%), OHP(6.9%),

LCD(0.7%)로 비디오 매체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의 빈도, 또는 성교육 시간에 대해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는 1년에 한두번(78.4%), 반년에 한두번(17.0%), 한달에 한두번(4.2%), 1주일에 한두번(0.4%) 순이었고, 한국성문화연구소(2000) 연구에서 지난 일년간 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 평균시간 결과는 남녀전체 3.07시간으로 이중 남학생은 2.29시간, 여학생은 3.39시간의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 시행되는 학교성교육은 대부분 1년에 한두번, 일회성 행사의 성교육이 대다수로서 이 중 남학생에 대한 성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 성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통로가 학교(52.38%)와 또래집단(30.82%)로 한정된 상황에서(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 3) 학교 성교육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은 성교육 부재와 직결된다.

이상의 학교성교육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한국성문화연구소(2000)의 연구에서는 전체청소년의 73.8%가 현재의 학교성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불만족 정도(80.9%)가 여자청소년(71.0%) 보다 높았고 이 중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 역시 남자청소년이 65.7%, 여자청소년이 49.2%보다 높았다.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74.2%), 성교육 담당 교사의 교육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설명이 부족해서(62.0%), 성교육 보조자료 및 매체의 활용부족(28.6%), 교재불충분(27.7%), 시간부족(26.0%), 성교육에 관심없어 모르겠음(7.4%)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성교육에 대한 불만족(76.47%)이 가정성교육(55.98%)보다 크게 높았고 학교성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45.44%), 이미 다

아는 내용(28.29%), 윤리적·도덕적이기 때문(13.67%), 집단적·공개적인 교육이기 때문(10.51%), 기타(2.09%)였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54.92%)과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34.60%)이라고 응답한 확률이 여자청소년에 비해(38.63%, 19.52%) 월등히 높게 나타나 학교 성교육에 흥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과거 혹은 현행 성교육의 문제점을 질문했을 때 남녀청소년 모두 피상적이고 지루한 내용(61.2%)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내용(52.6%), 교재 및 지침서 부족(28.7%), 교사 담당자의 지식부족(28.3%), 성교육 시간의 부족(27.8%)을 비슷한 정도로 응답하였다.

즉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성교육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교육이 신체, 생리적 영역에 치중된 내용상의 문제와 성교육 빈도, 매체 빈곤, 성교육담당자의 지식부족 등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남자청소년들의 성교육 불만족 비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학교, 가정, 혹은 지역사회차원의 성교육이 남자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희망하는 성교육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교육의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교육에 대하여 많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과 운영방법 등은 무엇인가?

<표 III-5>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

내용 성별	신체/ 심리 변화	성적 공상/ 충동	자위 행위	성기위 생/성 건강	이성 교제	키스/ 애무	성교	임신/ 피임	비정상 성행동	가치관 성태도	성역할	기타	전체
남자	240 (12.9)	276 (14.9)	288 (15.5)	349 (18.8)	399 (21.5)	353 (18.0)	338 (20.9)	352 (19.0)	242 (13.0)	313 (16.9)	252 (12.6)	52 (2.9)	927 (49.9)
여자	184 (9.9)	187 (10.1)	184 (8.8)	301 (16.2)	364 (18.6)	265 (14.3)	298 (16.0)	512 (27.6)	195 (10.5)	357 (19.2)	210 (11.3)	44 (2.4)	930 (50.1)
전체	424 (22.8)	463 (25.0)	472 (25.4)	650 (35.0)	763 (41.1)	618 (33.3)	636 (36.9)	864 (46.5)	437 (23.5)	670 (36.1)	463 (24.9)	97 (5.2)	1857 (100.0)

출처 : 김혜원, 이해경(2001).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pp. 113.

김혜원,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남녀 고등학생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성교육 내용은 임신과 피임(46.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성교제(41.1%), 이성간 성교(36.9%), 가치관/태도(36.1%), 성기위생 및 성건강(35.0%), 이성간 키스나 애무(33.3%), 자위(25.45), 성적공상/충동과 성역할 각각 24.9%, 비정상성행동(23.5%), 신체/심리변화(22.8%), 기타(5.2%) 순이었다. 남녀별로 더 많이 받고 싶은 성교육 내용으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적공상이나 성적충동, 이성교제, 이성간 성교가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임신과 피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성문화연구소(2000)의 연구에서는 성교육시 배우고 싶은 내용 1순위가 피임방법, 2순위 성병, 3순위 에이즈, 4순위 사이버시대의 성, 5순위 임신이었다.

성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받고 싶은 성교육 방법은 사례 제시(33.8%), 시청각 자료 이용(31.4%), 토론식(18.4%), 강의식(11.7%), 기타(2.9%), 책자교육(1.8%) 순이었다. 희망하는 성교육 빈도에서는 반년에 한두번(28.3%), 일년에 한두번(25.8%), 한달에 한두번(23.5%), 받고 싶지 않다(14.7%), 일주일에 한두번(6.3%), 기타(1.5%)로 응답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2000).

즉 청소년들은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책자, 강의위주의 성교육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나 시청각 등의 자료를 활용한 성교육을 현행 빈도보다 자주 교육받기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피상적이고 지루한 내용, 요구와 동떨어진 내용으로서 남녀청소년들은 이성교제, 성행위, 키스나 애무, 피임방법, 성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청소년들은 2차성징 이후의 성적 공상이나 성적충동, 이성교제, 이성간 성교에 대한 교육 욕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자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성교육에 대한 기대욕구가 다른 만큼 성차 및 성교육 요구가 차별되게 적용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성교육의 시행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학교 및 지역사회가 가진 물리적, 현실적 한계로 인한 천편일률적인 강의식의 무미건조한 방법이나 일회적인 행사성 성교육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제시, 토론식 수업,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보다 역동적인 방법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4) 상담사례를 통해 본 남자 청소년의 성 고민

앞 절에서는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남자청소년의 성 고민을 살펴해보았다. 본 절에서는 남자청소년의 상담사례를 통해서 성 고민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내일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설 성교육센터의 사이버 상담사례이다. 본 상담소의 2001년도 상담실태분석에 따르면 자위행위(21.8%), 성지식(16.5%), 임신 및 낙태(8.8%), 성폭력(7.5%), 성욕구 및 성심리(7.0%), 성추행(6.0%)순으로 나타나 있다.

전화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에서 남고생의 상담이 가장 적으며 이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성 고민을 상담소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또래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자 청소년들의 상담은 자위행위에 대한 것이 많지만 자위 그 자체보다는 ‘음란물을 자주 보는 데 그 때마다 자위를 하게 되고 또 음란물에서 봤던 내용들이 자꾸 떠올라 자위를 하고 싶어진다.’ ‘자위의 횟수를 줄이고 싶은 데 잘 되지 않는다’, ‘병이 걸리는지, 몸에 나쁜지, 나쁜 짓인 지’ 등 음란물로 인한 충동, 자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상담들이 대부분이다. 상담사례를 통해 본 남자 청소년의 성 고민은 음란물로 인한 성 충동, 실제 성 관계 및 임신에 대한 고민, 성 지식, 성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요약된다.

(1) 음란물로 인한 성 충동

상담사례를 통해서 보면 음란물이 남자청소년들의 성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은 그것은 음란물일뿐이고, 볼 때 빠져들긴 하지만, 그래서 자위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장면은 성폭력인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떤 행동은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간혹 음란물에서 봤던 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늘 머릿속에 음란물의 장면들이 기억되며 자위를 할 때마다 음란물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즉 남학생들 대부분이 성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적인 생각, 성 충동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러한 성적 갈등들은 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성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더 많다.

“고3입니다. 요즘 성인사이트에서 페티쉬라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걸을 보다보니깐 자꾸 여자 다리나 허를 신은 모습을 보면 자꾸 흥분이 되여...그리고 어느 상가에서 허리가 있길레 몰래 공중화장실에 가져가서 자위행위를 한적도 있고요...정말 미치겠어요..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빠져드는데 저 좀 제발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변태되는거 아니에

요..?”.

“음란물을 자주 보는 편인데 보면서 자꾸 자위를 하게 돼요.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럴려고 음란물을 안 보려고 하지만....친구들이 보내주면 안 볼 수도 없고..”

(2) 실제 성 관계 및 임신에 대한 고민

조사 기관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남학생의 성 경험은 약 10% 정도 된다. 따라서 성관계에 대한 충동과 성 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자친구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아파해서 중간에 그만됐어요. 사정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이경우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자꾸 불안해해서요“

“성 관계 갖기 2주정도 되서 한번 더 했거든요 一.一;; 만약에 여자가 임신됐을 때도 성관계 가지면 어케되나염 궁금? 기간이 있지않나여? 꼭 좀 알려주세요 자 세히좀..“

“임신하기 전에 피같은게 나오나요? 제 여친이 이상하네요..원래 생리는 12~15 일사이에 하는데..오늘 생리 같은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건 며예요? 임신인가 요? 착상혈인가 그런거예요??”

“여자친구와 오늘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남자피임기구를 사용해서 했거든요? 콘돔으로요.

근데 빠다가요 그만 성기만 빠지구 그거는 그대로 있어서 그게 밑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대변보는 구멍으로 약간 스며들었는데 이것도 임신이 되나요?“

“저기요..제 여자친구가 불규칙적이지만..매월 거의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생리를 했는데요..

지난 달 말에 생리가 끝났는데요, 이번 달에 여자친구가..어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더라구요.. 질외사정을 했는데..왠지 찻찻하더라구요.. 한번하고 다시 또 했거든요..

약간의 사정을 해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 여자친구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 안하거든요.. 자기가 언제 배란일인지도 잘모르고..... 생리를 안 한다면..어떻게 된건가요? ”

“여자친구와 7월 28일에 관계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리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생리를 안합니다. 좀 있음 생리 안한 지 한 달이나 한 달이 넘었을 건데.. 이렇게 오래 늦을 수도 있습니까? 한달쯤 지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하는 걸 사서 해봤는데 임신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 확실한건가요??? 그런데도 아직도 생리를 안하니까 걱정이 대서요... 말은 안해도 걱정대고 힘들텐데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산부인과 갈 때 의료보험카드 안들고 가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임신이라면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최대한 안 아프고 여자친구 몸에 해롭지 않게 해결하고 싶어요.”

“제 여자친구랑 관계를 맺진 않았어요. 물론 성기 접촉도 없었죠. 그런데 투명물체까지는 제 여자친구 팬티에 묻었었거든요. 근데요 전 거의 임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그런날 다음날 화장실에서 피가 조금 나왔대요. 그게 그럼 착상 시 나오는 그 피입니까? ”

“저는 고1 학생입니다..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 선은 넘어버려 여자친구가 임신이 된 것 같습니다..제가 옆에서 무엇하나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글을 남깁니다.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까지 뛰고 있는데....”

“전... 17살... 남자입니다.. 저기...애를 지우려고 하면..... 부모님의 동의서 같은..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민중 가지고 있는 성인이.. 대신 보호자 동의 해주면 안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휴.... 아무도 모르게.... 애를 지울 수는 없는 건가요.....? ”

“그 짓을 할라구 하는데염 키스랑 가슴 만질 때는 탄탄하게 셋거든요. 근데 막 상 넣으려구 하니깐 안스네염~!! 쪽팔리구. 괜찬타구 힘 낼라구 하는데 무슨

힘이 나요~!

피곤해서 그런가요?? 어제 잤 하느라 밤 새긴 했는데....“

(3) 성 지식

남자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다 아는 척 행동하지만 의외로 성 지식에 대해 잘 모르며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상담이 꽤 있다. 남자 자신에 대한 성 지식 뿐 아니라 여성의 성에 대한 지식을 묻는 상담이 많다.

“남자가 사정을 하면 여자도 느끼나여? 질 안에다...사정하면 느끼나여, 아니면 찼는지 여자들도 알아여?”

“안녕하세요..물어볼 게 있는데요..야한 걸 보게되면.. 쿠퍼액도 아니고..그냥 하얗고 찐덕 찐덕한 물이 성기에서 나오거든여.. 남자들 누구나 야한걸 보게되면 그러나요?”

“성기가 약간 휘었거든여. 자위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근데..이거 집에서 고칠 방법은 업나요? 그리고 야한걸 보면 나오는 찐덕한 물이 여자 질에 들어가도 임신되여?”

“여자들은 흥분을 하지 않으면 유두가 일어슬 일은 업죠? 그져? 그리고 여자들도 음핵이 발기가 되나여? 더 커진다고 들었는데.. 음핵이”

“전 지금 고1 남학생인데여 성기에 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중 2 말에 부터 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털이 듬성듬성 났어요 더 이상 안나는 것 같아여 다른 애들은 다 많이 났는데 왜 그런거져?”

“사정을 한 번하고 나서 몇 분 뒤에 다시 사정(정액의 양도 적고 색깔도 흰색이 아니라 투명한 색)을 했는데 두번째 사정했을 때 정액에 어느 정도의 정자가 있나요?? 그 정도로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자위를 하루에 한번씩 하고있어여..... 그것도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습관적으로 하네요. 샤워하다가 하고..... 또 하고 나면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왜 또 괜히 했을까 하는 기분도 들고 몸도 나빠지는 것 같아요. 신장이 나빠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사람들이..... 휴.....어떻게 해야할까요.....정말 몸에 심각한 무리가 가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꼭 중요.....”

“피임에 대해 다 얘기해주세요.”

“콘돔도 잘못하면 피임이 안된다고 하던데....랩으로 싸면 된다는 데 그게 더 낫나요?”

(4) 성 정체성

남자로서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다. 여자 옷을 입고 싶고 여자처럼 하고 싶은 충동을 호소하며 고민하고 있는 경우이다.

“남잔대요.. 여자 옷을 입구 싶구여.. 화장두 하구 싶은데. 그러구..커서..성전환 수술도 하고 싶어여..”

“어렸을 때 누나 치마를 입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간혹 그런 충동이 생기는 데 문제가 없나요?”

IV. 청소년의 ‘위험한 성’예방 프로그램 사례

1. 한국의 ‘위험한 성’ 예방프로그램
2. 미국의 남자 청소년 대상 임신예방프로그램

IV. 청소년의 '위험한 성' 예방 프로그램 사례

1. 한국의 '위험한 성' 예방프로그램

1) 교육부 성교육 정책

1983년 교육부가 『학교성교육지침서』를 제작한 이후 학교차원의 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0년에는 “2000년 학교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후 성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성교육자료 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고(교육부 성교육세미나, 2000), 2001년에는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인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를 발간,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성교육담당 교사연수, 워크숍 개최 등을 진행하였다(표IV-1 참조). 최근에는 성교육교사용 홈페이지(www.edugender.or.kr)를 오픈하고 운영 중에 있다. 2002년 올해에는 성교육 교수-학습방법개선과 자료개발 등 지침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2002년 성교육 자료개발 지원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표IV-2 참조).

이 절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부가 발간한 성교육 교사용지침서(고등학생) 내용을 살펴보고, 2002년 자료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시범운영된 각 시도교육청의 시범학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 교육부 성교육정책 추진결과

기 간	내 용
2000. 4-11	성교육 교재 개발연구 : 유·초저·초고·중·고교별 성교육 교재 개발
2001. 4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및 CD보급 : 전국 19,000개교 93,000점 보급
2001. 5-9	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 1차 강사요원연수(360명), 2차 담당교사연수(18,500명)
2001. 11	성교육 교사워크숍 개최 :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성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 160명 참석
2002. 2	2002년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침 시달

<표 IV-2> 2002 성교육 교수-학습 자료개발 지원계획

목 적	○ 성교육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자료개발, 성교육 교사용 지도 지침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등 성교육 관련 연구활동 지원 ○ 성교육 담당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자생연구 단체 활성화 유도	
기본방침	○ 성교육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 교수-학습 보조자료 개발에 중점을 둔다. ○ 시·도교육청별로 각급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중심의 자료개발팀(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자료를 개발한다. ○ 시·도교육청의 개발계획을 심사·평가하여 계획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한다(지방비 지원 권장). ○ 개발된 자료 중 우수자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보급한다(2002-2003년).	
추진일정	2002. 3	성교육 자료개발 지원계획 안내
	2002. 4	시·도 교육청 개발계획 제출
	2002. 5	자료개발계획서 심사 및 지원계획 통보
	2002. 5	국고보조금 지급
	2002. 5-10	자료개발 기간
	2002. 10	사업결과보고서 및 개발자료 제출
	2002. 11	자료개발결과물 발표 및 심사평가
	2002. 12	우수개발팀 시상
	2003. 2	우수자료 보급 및 확산계획 수립

다음은 교육부가 개발한 성교육 지침서 사례이다.

<사례> 교육부 성교육지침서(2001) - 「함께 풀어나가는 성이야기-고등학교」

□ 목표 :

- 1) 성평등교육 실시 2) 올바른 성지식정보 제공 3) 인간관계 교육 4) 성문제 예방 5) 성적 의사결정력 증진 6) 생명에 대한 존중감 7) 성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 형성

□ 대상 : 남녀 고등학교 청소년

□ 프로그램 형태 및 기간 :

- 집단 및 개별활동, 3부 9장의 형태로 50분씩 총 32시간
- 관련 교과목(체육, 가정, 생물 등), 클럽활동 시간 등 활용하여 1년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수로 필요에 따라 교사들이 선택하여 수업 진행

□ 내용 :

1.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	소영역	주 제	내 용
1. 신체 발달	신체의 구조와 변화	사춘기의 신체 및 성적발달	- 사춘기의 신체 및 성적발달 - 성적발달과 성호르몬 - 성적발달의 순서 - 신체변화의 심리적 효과와 개인차
		인간의 신체구조와 생식	- 남성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생리현상 - 여성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생리현상 - 초경과 몽정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개인차
		사춘기의 성적발달과 위생	- 남자 생식기 위생과 방법(생식기 위생과 포경수술, 포경수술의 시기 등) - 여자 생식기 위생과 방법(외음부 질염의 원인과 예방, 생리중 건강과 위생)

영역	소영역	주 제	내 용
2. 성 심 리 의 발 달	발달단계적 특성	이성애 발달	- Hurlock의 이성애 발달 과정
		대인관계 욕구발달	- Sullivan의 대인관계 욕구발달 과정
	청소년기의 고민과 갈등	성욕구와 성반응	- 성욕구의 이해 - 성욕구의 조절중추 - 성욕구의 남녀차이 - 성반응의 주기(성반응의 남녀 차이)
		성충동과 자위행위	- 성충동과 자위행위 - 성충동의 해소방안
3. 성 건 강	임신과 피임	임신과 출산	- 임신의 성립 - 임신의 증상: 신체적, 심리적 변화 - 태아의 성장과 발육 - 출산: 출산의 준비, 과정 및 산후관리
		피임	- 피임의 필요성과 목적 - 피임의 종류, 원리, 장단점 - 피임의 방법 - 피임을 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원인 - 피임방법의 선택과 책임
		인공임신중절	- 인공임신중절이란, - 인공임신중절의 방법 - 인공임신중절의 위험과 유의사항 - 10대 인공임신중절이 갖는 문제점과 위험성 - 인공임신중절에서 오는 문제들과 대책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반 논쟁
	성관련질병	성병의 종류와 증상과 예방	- 성병이란? - 성병의 종류와 증상 - 성병의 원인과 예방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예방	- 에이즈의 원인 - 에이즈 감염 경로 - 에이즈의 진행과정과 증상 - 에이즈에 대한 허와 실 - 에이즈의 예방
	이상 성행동	이상 성행동의 유형별 특징	- 이상 성행동이란? - 이상 성행동의 유형별 특징
		이상 성행동의 예방	- 이상 성행동의 원인과 예방

출처 : 김혜원, 이해경(2001).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pp. 13-14.

2. 인간관계 이해

영역	소영역	주제	내용
1. 이성과 사랑	이성교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현황 및 이성관계 발전	- 이성교제 경험현황 - 이성관계의 발전요인 및 저해요인 - 이성교제의 기능
	사 랑	사랑의 요소, 유형 및 사랑의 경험	- 사랑의 요소 - 사랑의 4단계 - 사랑의 유형 - 사랑의 감정들, 사랑의 행동들 - 사랑에 대한 태도
2. 성적 자기결 정과 선택	사랑과 성적 행동	사랑과 성적행동의 관계 및 청소년들의 성행동	- 성과 사랑의 관계 -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 - 성태도에서의 남녀차이
	성행동과 성적 의사결정	성적 의사결정 및 청소년들의 혼전임신	- 청소년 성행동의 특징 - 청소년들의 성행동 현황 - 청소년들의 혼전 임신
3. 결혼과 가정	결 혼	결혼의 의미	- 결혼의 의미 - 다양한 결혼제도 - 결혼의 법적 조건 - 결혼에 대해 짚어볼 사항들
	가정과 자녀양육	가정과 자녀양육	- 가정형태의 변천 - 가족생활주기 - 자녀양육의 중요성 - 모성본능? 본능 vs. 사회화의 산물

출처 : 김혜원, 이해경(2001).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pp. 15.

3. 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	소영역	주제	내용
1. 성과 사회적 환경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성폭력의 개념 및 올바른 인식	- 성폭력이란? - 성폭력의 유형: 행위에 따른 분류 - 강간 - 성폭력의 유형: 대상에 따른 분류 - 성폭력에 관한 인식의 허와 실
	성폭력의 원인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의 사회적 원인 및 대책	- 성폭력의 원인 - 성각본과 성폭력 - 성역할과 남성의 공격성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 성폭력 피해 후 대처방안
	대중매체와 성: 포르노	성상품화와 포르노	- 성상품화와 포르노 - 예술 vs 의설 - 포르노 영화의 이모저모 - 청소년들의 포르노 이용실태 - 포르노의 영향
	성상품화: 청소년 매매춘	청소년 매매춘 및 원조교제	- 청소년 매매춘의 정의 - 청소년 매매춘의 실태 - 최근 청소년 매매춘의 특징 - 청소년 매매춘의 원인 - 원조교제
2. 성차 및 성역할	성차: 남성과 여성의 갈음과 다름	성차	- 성차 - 인지적 능력의 성차 - 사회적 행동의 성차 - 성차의 원인
	성역할 및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및 성역할 정체감	- 성역할과 성역할 정체감의 의미 - 성역할 및 성역할 고정관념 -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
	성역할 사회화	성역할(정체감)의 형성과정	- 성역할 사회화 - 가정에서의 성역할 사회화 - 학교에서의 성역할 사회화 - 대중매체를 통한 성역할 사회화
3. 양성평등적 사회	성정형화의 영향	정형화된 성역할로 인한 폐해	- 성정형화의 영향 - 성정형화의 폐해: 여성 - 성정형화의 폐해: 남성
	양성평등적 학교 및 사회	양성평등적 사회문화의 형성	- 양성평등적 사회, 양성평등적 교육 - 심리적 양성성 이론

출처: 김혜원, 이해경(2001). 함께 풀어나가는 성이야기(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pp. 13-14

2) 학교의 성교육프로그램 : 2000년 시범학교 사례

(1) 사례

<사례 1>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 초등학교

프로그램명	성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올바른 성의식 함양
목 표	1)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성의식 고취 2) 교사와 학부모의 고정적인 성역할 의식의 변화 3) 성교육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올바른 성지식 획득
대 상	전교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 형 태	설문조사, 교내 행사 및 교사연수, 성 상담실 운영
지 도 자	연구담당교사, 양호교사
내 용	<실행 목표 1 :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① 관련 교과와 연계한 교수-학습 활동 ② 성읽기 자료 구안 및 활용 ③ 성교육 관련행사 실시(성교육관련 독서감상문쓰기, 분기별 독서토론회, 재량활동, 아침자습시간을 활용한 NIE학습, 성교육관련비디오, 월1회 CD시청 및 감상문 쓰기, 분기별 성문화토론회 개최) <실행목표 2 : 교사·학부모 성교육 연수기회 확대> ①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학부모용 양성평등 스티커 제작/성교육 방송 실시) ② 전 교사 대상 성교육 ③ 학부모 성교육 실시(학부모 성교육 연수/학부모 독서감상문 대회/ 부부 명패 달기) <실행 목표 3 : 성교육 환경조성> ① 성상담실 운영(성교육 자료수집/“알고 싶어요” 상담카드함 설치) ② 각 교실, 성폭력 예방 코너 운영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0). 성교육연구운영보고서 <http://moe.go.kr/Policy>.

<사례 2> 강원도 둔내중학교 - 남녀공학

프로그램명	중학생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성교육 방안
목 표	1) 중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방안구안 2) 자신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성적 태도함양을 통한 성비행·성폭력 피해예방 3) 남녀의 바람직한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성의식 함양
대 상	전교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 형태	설문조사, 담당교사의 교과학습시간·특별활동 시간 활용
지 도 자	연구담당교사, 양호교사
내 용	<운영과제 1 : 교과내용 중 관련요소 추출하여 성교육 자료개발> ① 관련교과(도덕, 국어, 사회, 과학, 체육, 가정)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성교육 계획수립운영(학년별 10시간 이상 성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관련교과 협의회 월 1회 실시) ② 교사 성교육 연수 ③ 성관련 교과 학습 연구수업 및 공개발표 실시 ④ 관련교과 내용 분석 및 성장단계에 맞는 성교육 자료개발 (성교육시간 확보/학년별 수업담당교사 3명 선정/전문강사 초청 강연회) ⑤ 일부교과 정기교사에 성관련 평가문항을 출제하여 반영(수행평가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제고 <운영과제 2 : 교육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단계적 성교육 실시> ① 학생대상 성의식 기초조사 ② 사전 점검 실시, 중학생에 맞는 관련 프로그램 선정 활용 ③ 특별활동 시간 중 분기별 2회(2시간)활용 성교육 ④ 성교육 관련 유인물 배부 및 학급 게시판 게시 <운영과제 3 : 관련 활동을 통한 성교육 방안 구안> ① 학생활동 실시(성관련 글쓰기 행사 및 시상/행사 참여자 학년별 국어, 미술 교과 수행 평가에 20% 반영) ③ 학급별 성관련 고민 등 모듬일기 쓰기(담당교사, 담임교사 점검) ④ 성토론반 20시간운영(주제토론, 관련 비디오, CD시청, 역할극)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0). 성교육연구운영보고서<http://moe.go.kr/Policy>.

<사례 3> 서울 관악구 봉림중학교 - 남녀공학

프로그램명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성교육의 실제
목 표	1) 건전한 성지식 함양 2)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
대 상	전교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 형 태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다양한 성교육활동
지 도 자	관련과목 교사, 담임교사
내 용	<운영과제 1 :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한 학습여건 마련> ① 성교육 관련 도서, 신문, 영상자료 수집 및 분석 ② 성교육 교사 연수 : 교내 연수 및 외부 성교육 연수 ③ 성교육 학습자료 확보 및 교육시설의 개선(사회과 교실을 성교육실로 활용/상담실 자료실/성교육자료 코너마련/학교 홈페이지 활용) <운영과제 2 : 성교육 학습지도안의 분석,재구성하여 수업> ① 성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안 수집, 분석 ② 학습지도안 재구성을 통한 공동교수·학습지도안 구안, 적용 (개발된 학습지도안 22차시 분을 보전시간, 별도 시간(매주 금요일 교시)에 각 학년별 11시간 진행/성교육 전문교사 중심으로 수업실시 후 평가회/해당 교과 관련 단원에 적합한 성교육 학습지도안을 제고하여 수업에 활용/ 강의 수업, 소집단 토론 NIE수업, 시청각 수업, 문제해결 수업, 게임수업(OX, 퍼즐놀이), 과제수행 수업진행) ③ 학부모 연수를 통한 가정에서의 성교육 강화 <운영과제 3 :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한 성프로그램개발 및 적용> ① 성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수집 ② 특별활동 성교육 프로그램/학교행사 성교육 프로그램 ③ 성교육 게시판(귀한 성, 아길 성 설치운영) ④ 성상담 쪽지함(아우성 함) 설치운영 ⑤ 성교육 소식지(귀한 성, 아길 성)발행 ⑥ 교내행사(봉림제(종합 작품 전시회, 어울마당/성교육 캠프 개설 및 참가/방학 중 성교육 활동/백일장/청소년 성문화 체험관 관람/성을 주제로 한 역할극, 랩, 난타, 나레이션 예선 및 본선대회 개최)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0). 성교육연구운영보고서<http://moe.go.kr/Policy>.

<사례 4> 충청남도 서천 고등학교 - 남자고등학교

프로그램명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양성평등적 가치관 정립 방안
목 표	1) 교사, 학부모 연수로 성교육 지도 능력 및 양성평등적 가치관 배양 2) 관련 교과와 성관련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이성간의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 3) 다양한 교수 매체 및 방법으로 성교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과 이성에 대한 태도 습득 4) 다양한 성관련 행사를 통한 성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지속
대 상	전교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 형태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다양한 성교육 활동
지 도 자	관련과목교사, 담임교사
내 용	<운영중점 1 : 양성평등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조성> ① 교사 대상 월1회 성교육 연수 ② 학부모에 대한 성교육 연수활동(가정통신문, 외부 강사 초청강연) ③ 성교육 실시를 위한 시간 확보(관련과목, 학급시간, 특별활동시간 활용 1학년31시간, 2학년26시간, 3학년28시간의 총85시간) ④ 환경정비 및 성교육 게시판 설치 <운영중점 2 : 양성평등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① 교과 관련 성교육 요소의 추출 및 재구성 ② 교사, 학생, 학부모에 적합한 성교육 모형개발(성교육 읽기 자료 개발/서천군 청소년 상담실과 연계/학교신문, 성교육 게시판 이용) <운영중점 3 : 개발한 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①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급회의를 통한 영역별 성가치관 토의 ② 양성평등적 가치관 교육 모형 적용 및 평가(개발한 교육자료의 활용/ 지역상담소와 지속적인 연계 /학교신문의 “성교육 관련 고정란”, 각급 교실의 “양성평등란”, 복도의 “양성평등교육 게시판” 활용/ 방송문화) ③ 학생을 위한 다양한 성교육활동(퀴즈대회, 글쓰기대회, 포스터그리기, 성관련스크랩)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0). 성교육연구운영보고서(<http://moe.go.kr/Policy>).

(2) 평가

교육부가 학교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진행한 정책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재량시간 확대, 성교육교재 개발, 시범학교 운영, 관련교과와 과외활동을 통한 성교육 실시,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 연구활동의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학교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하에 성교육지침서를 발간한 것은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마땅히 참고할 성교육자료를 찾지 못한 일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무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교육부의 성교육 정책과 학교차원의 성교육들은 성교육지침서 발간을 필두로 한 성교육 교재의 개발과 지속적인 지원, 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 증진, 교과별 협의회 활성화, 다양한 교내활동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반면 학교현장이 가진 특수성과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학교 성교육은 그 내용과 운영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성교육 내용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학교성교육 내용은 여전히 신체적/생물학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하여 단편적인 지식전달에 그치고 있다. 앞서 살핀 여러 선행연구들의 청소년 성교육 요구도에서 보여지듯이 청소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성교육 내용은 해부/생물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성관계, 성관계, 피임, 성병 예방, 성가치관 등 다양하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부분 성지식을 얻는 경로인 학교가 해부/생물학적 내용들로 편중된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데이트강간, 남녀의 성차이해 및 의사소통기술훈련 등의 교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성교육 내용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성교육 방법, 빈도, 성교육 담당자 등의 운영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의 학교 성교육은 성교육이 정식교과로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시도들에서 불구하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성교육이 정규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가정, 생물, 체육, 도덕 등으로 분산되어 특강, 혹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이 힘들다. 또한 관련교과 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학교 성교육의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성교육시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기존의 6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시간인 초등1-2학년 3시간, 3-6학년 4시간, 중1-고1의 6시간보다 재량시간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지금의 재량시간만으로는 전인적인 성교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상의 부족은 성교육시간에 단지 남녀간의 성생리를 설명하기에 급급한 현상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넷째, 학교성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의 부재이다. 일부 성교육시범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는 관련교과목 교사나 체육교사, 양호교사 주도하에 성교육이 진행됨으로서 학교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즉 성교육 시간 할애, 기회마련, 과제선정,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등에 대한 기획력이 부족하게 됨으로서 행사위주의 성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다.

3) 지역사회 차원의 관련프로그램

청소년 성교육의 다른 한 축은 각 지역사회의 복지관, 시민단체, 지역 상담소 등의 지역차원의 성교육들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대상을 일반청소년으로 하고 있는

가 혹은 이미 문제를 일으킨 가해 청소년인가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이는 다시 내용별로 일반 성교육, 성가해자 프로그램, 성매매 예방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이 절에서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프로그램과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최근에 실시되었던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 볼 것이다.

(1) 일반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사례 1>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모의재판을 활용한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 나·너·우리, 사고 파는 성으로부터 함께 지키기
목 표	1)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의식고양. 2) 성매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적선택능력을 향상 3) 모의재판이라는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 성매매관련 법적인 권리와 책임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대 상	일반 중고등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형 태	75분
지 도 자	실무자, 모의재판팀, 법률 및 청소년 성문제 전문가
내 용	① 영화상영 ; 성매매의 유혹 또는 상황을 극복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 영화 상영 ② 프로그램 소개 ③ 모의재판 - 형사재판 ; 성매수 성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결정 - 소년부재판 ;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 배심원 회의 ④ 전문가 강의 - 실제 판례소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 책임소개 - 청소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소개 ⑤ 마치기 - 재판 전체 요약, 대안정리 제시 - 참가 청소년 소개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성매매 바로알기 교육캠페인 사례보고 및 평가회 자료집. pp. 21-25에서 재구성한 것임.

<사례 2>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마당극을 활용한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 우리의 성, 사고 팔 수 있을까?
목 표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
대 상	일반 청소년 15-20명
프로그램 형 태	모듬토론 및 마당극 시연
지 도 자	실무자, 전문 연극배우, 모듬 지도자, 자료도우미
내 용	① 오리엔테이션 ② 모듬토론 ; 가출하고 싶었던 상황/ 소비문화와 광고 속 에서의 성/ 성폭력의 의미 및 대처/ 청소년 성매매 ③ 마당극 대본제작 및 수정 ④ 마당극 연습 ⑤ 마당극 성교육 발표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성매매 바로알기 교육캠페인 사례보고 및 평가회 자료집. pp. 13-15
에서 재구성한 것임

<사례 3>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섹슈얼리티 전시실 기행
목 표	올바른 성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감정·사상·행동을 포함한 전인적인 성(sexuality), 성적의사결정훈련(sexual decision making)을 돕는 것
대 상	사전에 예약 신청한 일반 중고생 10-15명
프로그램 형 태	사전예약 후 약 2시간 소요, 개인비용 500원
지 도 자	실무자, 성교육자원활동가(대학원생 및 대학생)
내 용	① 몸과 관계 ; 실제 모형 전시실 관람 및 다양한 매체활용 몸탐험 /다양한 성행동, 성반응, 남녀의 성심리/ 성관계하기전 준비할 것과 의사결정/ 피임방법 실습 및 대화 법/생명탄생의 신비 : 임신, 태아발달, 출산 / 준비되지 않은 성교의 문제들 / 생각할 꺼리들 : 남녀성차별, 성상품화, 성적 체성 ② 집단활동(선택 1) - 자신의 사랑유형 테스트 및 사랑의 삼각형 이해 - 데이트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 친밀감 표현 및 의사소통 훈련 - 성역할, 성평등훈련 - 성적의사결정 훈련 ③ 마무리 ; 다양한 방식의 소감발표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중등교원 대상 성교육 성상담 교사연수 pp. 119-122

<사례 4>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 CA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CA성교육반
목 표	1)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서로 다른 인격체와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보, 성적결정의 기술과 가치, 성의 주체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제공 2)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며 다양한 성적상황에 맞는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배양
대 상	일반 중고등학교 동일학년 20-30명
프로그램 형태	학교 특별활동 성교육반 1년과정
지 도 자	실무자 1인, 성교육자원활동가 2인(대학원생 및 대학생)
내 용	● 고등학생용 ① 클럽활동 안내 및 자기소개 ② 몸으로 친해지기 1 : 놀이게임, 동작을 통해 자기소개와 마음열기 ③ 자신의 성격유형알기 ④ 다양한 사랑유형알기 : 자신의 사랑유형알기/ 사랑의 삼각형에 대한 이해(친밀감, 열정, 헌신) ⑤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훈련 ; 감정표현 양식 알기/ 나 전달법 훈련/ 대화기술 익히기(화자, 청자) ⑥ 성퀴즈 대회 ⑦ 몸으로 친해지기 2 : 체육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 ⑧ 이성교제! 그것을 알려주마 ⑨ 성평등 훈련 : 성역할 고정관념 깨기/ 남녀에 대한 이해와 개성존중하는 문화경험 ⑩ 성폭력 바로 알기 : 데이트 성폭력 예방/ 성희롱 예방 ⑪ 성적자기결정 ⑫ 인생설계 ⑬ 평가회 및 종강잔치 ; 사후설문조사

내 용	● 중학생용 ① 클럽활동 안내 및 공동체 놀이 ② 몸으로 친해지기 1 ; 놀이게임, 동작을 통해 자기소개와 마음열기 ③ 성입문 ; 성드러내기/ 성개념 정의/ 성충동과 성적행위 나누기 ④ 사춘기의 성 ; 사춘기 성적 발달과 변화/ 생식기 명칭과 생식 ⑤ 성! 그것을 알려주마 ⑥ 자신의 성격유형알기 ⑦ 성퀴즈 대회 ⑧ 성표현물 바로 보기 ⑨ 몸으로 친해지기 2 : 체육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 ⑩ 성폭력 바로 알기 ⑪ 성적자기결정 ⑫ 진로탐색 ⑬ 평가회 및 종강잔치 : 사후설문조사
-----	--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중등교원 대상 성교육 성상담 교사연수 pp. 122-125에서 재구성한 것임.

(2) 성폭력가해자 대상 프로그램

<사례 1>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목 표	성비행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정체감, 자아정체감 확립, 대인관계 기술향상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개인 및 가족 기능의 강화를 통한 문제대처능력 향상
대 상	청소년 성범죄자
프로그램 형 태	7-10명의 집단상담형태, 6일간 총 44시간
지 도 자	복지관내 프로그램 담당자
내 용	① 1단계(첫째날) ;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 및 나눔의 시간 - 사전 심리검사 및 성격검사 - 목표설정 - 체험 I - 일일평가 ② 2단계(둘째날) ; - 명상의 시간 - 치료레크레이션 - 사진말 나누기 - 나에게 쓰는 편지 ③ 3단계(셋째날) ; - 성교육 - 체험 II - 체험 III ④ 4단계(넷째날) ; - 체험 IV - 체육활동 ⑤ 5단계(다섯째날) ; 산행 ⑥ 6단계(여섯째날) ; - 진로탐구 - 나의 인생설계 - 부모님께 쓰는 편지 - 촛불의식

출처 : 전영실(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pp. 61-74에서 재구성한 것임.

<사례 2> 이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성가해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성가해자 프로그램
목 표	성비행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응도 고양, 바람직한 성적체감 확립을 도움으로서 재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적응도를 높이는 것
대 상	성비행 보호관찰 청소년
프로그램 형태	1일 8시간 총 5일의 집단 프로그램
지 도 자	프로그램담당자
내 용	① 1단계(첫째날) ; - 사전검사 - 자기소개 및 규칙 정하기 - MBTI검사 및 해석, 진로탐색 - '무슨 일이 있었지' - 개별상담 I - 나눔의 시간 ② 2단계(둘째날) ; - 충동조절 프로그램 - 운동 - 성과 이성관계 - 가치관 경매 - 10년 후 나의 모습 ③ 3단계(셋째날) ; - 성에 대한 테스트 - 성교육 - 운동 - 나의 장단점 - 영상편지쓰기 ④ 4단계(넷째날) ; 산행 ⑤ 5단계(다섯째날) ; - 일상점검 - 타임스케줄 - 나에게 쓰는 편지 - 사후점검 및 rolling paper - 수료식 및 영상편지 보기 ※ 오전 ; 부모교육,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짐

출처 : 전영실(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75-83에서 재구성한 것임.

<사례 3> 와치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성범죄자 프로그램
목 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아개념을 강화, 성정체감확립, 성윤리관 확립, 부모자녀간의 이해도 증진을 도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대 상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 10명
프로그램 형태	2시간-2시간 30분, 주1회 집단프로그램
지 도 자	사회복지사 2명, 실습생 1명, 자원봉사자 5명, 감사3명, 자문위원 2명
내 용	① 자아개념강화 ; - '내가 궁금해' - MMTIC검사 - '나 속의 나' - 소시오드라마 - '우리가 만든 세상' - 자신감 갖기 ② 성정체감 확립 ; - '우리들의 호기심' - 성의식 높이기 - '사랑은 아름다워' - 성역할에 대한 태도 갖기 ③ 성윤리감 확립 ; - '세계의 중심은 나' -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립 - '부정적인 성세계', '성인성질환' 그것이 알고 싶다' ④ 부모자녀간 이해도 향상 ; 캠프 - 서로간의 가치관 이해 - 의사소통능력 높임

출처 : 전영실(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pp.88-95에서 재구성한 것임.

<사례 4>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의 성폭력 소년 수강명령 프로그램
목 표	성폭력 가해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재비행을 예방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습득도록 하는 것
대 상	성폭력 가해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처분 받은 청소년 8명
프로그램 형태	집단활동, 12차시 총 48시간
지 도 자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와 성폭력상담소 공동진행
내 용	① 1차시(첫째날) ;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② 2차시(둘째날) ; 알고싶은 성 - 콜라주 작업 ③ 3차시(셋째날) ; 나의 성 이야기 - 자신의 성인식 점검 ④ 4, 5차시(넷째,다섯째날) ; 성지식, 정보 바로 알기 ⑤ 6차시(여섯째날) ; 광고 속의 남과 여 ⑥ 7차시(일곱째날) ; 왜곡된 성 바로 알기 ⑦ 8차시(여덟째날) ; 영화관람 ⑧ 9, 10차시(아홉째, 열째날) ; 성폭력 바로 알기 ⑨ 11차시(열한번째날) ; 미래의 성문화 ⑩ 12차시(열두번째날) ; 소감나누기

출처 : 전영실(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61-74에서 재구성한 것임.

(3) 평가

각 지역사회에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복지기관, 상담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들은 현행 학교성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성교육 요구들을 상당부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10대 임신, 양성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이슈화하고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성교육교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성교육에 구체적인 지원, 마당극과 성기행 체험실 마련 등 지역사회단체가 가진 재정부족, 인원부족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성교육프로그램 역시 내용과 운영상에서 몇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특화되지 못한 내용구성을 들 수 있다. 많은 일선 성교육 실무자들의 문제의식과 노력으로 발달단계별, 문제유형별 특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역사회차원의 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열악한 재정상황과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문제별, 상황별, 대상별로 특화되지 못하고 모호하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다. 남자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성폭력, 매매춘 등 청소년 성비행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남자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여전히 남자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한 상황이다.

둘째, 기관별 프로그램 성격의 중복이다.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예방교육에, 보건소들이 에이즈나 성병의 성건강을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사회 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내용, 강사, 교육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셋째, 기관별 연계체계의 미흡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관별 프로그램의 내용이 서로 엇비슷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보호관찰소 프로그램의 청소년가해자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보호관찰소와 성폭력상담소가 공동

진행하여 기관간 연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관별 연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넷째, 성교육 매체 및 보조자료의 부족이다. 일선 지역사회 실무자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 중 하나로 지금까지 개발된 성교육 매체가 한정되어 있고 변화하는 청소년의 시대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고 지역사회기관이 이러한 성교육 매체개발을 감당하기에는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으로 기관차원의 보조자료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 미국의 남자 청소년 대상 임신예방프로그램⁷⁾

90년대 미국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살펴보면, 마약이나 흡연을 등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자살생각이나 무기소지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ww.urban.org). 특히 청소년의 성 관계 비율은 지난 10여 년 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 54.1%로 최고의 청소년 위험행동 비율을 보였던 것이 1999년에는 49.9%로 감소하였다(www.urban.org). 이것은 적어도 미국 청소년의 성관련 문제가 양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 관계는 임신, 성병, 부모되기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매년 미국에서는 백만 명의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한다. 이것은 15-19세 청소년의 10%이고 성 관계를 가진 여자 청소년의 19%에 해당하는 숫자이다(www.agi-usa.org/pubs/fb-teen_sex.html). 매년 3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성병에 감염되는데 이것은 성 경험이 있는 십대의 25%이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13%는 십대 부모를 가지고 이들 십대의 78%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www.agi-usa.org/pubs/fb-teen_sex.html). 십대 임신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십대 엄마

7) 이 부분은 조아미가 집필한 것임.

의 50%가 출산 후 1년 내에 복지혜택을 받고, 5년 안에는 77%가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의 임신은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미국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Burt, 1984; Rodriguez & Moore, 1995). 청소년의 성 관계로 인한 임신이 청소년 개인을 포함한 가족, 지역사회의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10대의 임신을 근절하기 위한 날(The National Day to Prevent Teen Pregnancy)'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10대 임신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www.teenpregnancy.org).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 관계를 비롯한 문제행동들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청소년의 성경험 비율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피임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성 관계는 대부분이 다른 위험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에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다른 임신관련 문제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Title X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이 있다. 이 법은 1970년에 제정되어 그 후 30여년 간 미국의 가족계획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www.plannedparenthood.org/library/FAMILYPLANNINGISSUES/TitleX_fact.html). 이로 인하여 많은 클리닉에서 연 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고등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고 임신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십대 임신예방의 방법으로 주로 금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임신과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임신에 있어서 남녀 모두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예방 프로그램에서는 남자 청소년을 제외하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의 참여가 프로그램 효과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www.jhuccp.org/pr/j46edsum.stm). 그 좋은 예가 미국의 건강 및

인권서비스 부서의 인구국(the Office of Population Affairs in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가족계획 클리닉 프로그램(the Young Men/Family Planning Clinic Partnership Program)을 실시한 것이다.

남자 청소년이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십대 임신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일찍 성경험을 하고 일생을 통해 여러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1995년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 Males(NSAM)에 의하면 15-19세 남자 청소년의 56%가 성경험이 있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섹스파트너의 수는 44%가 한 명, 26%가 두 명, 14%, 3-4명, 6%가 5명 이상, 그리고 10%가 없음인 것으로 나타났다(www.urban/family/invmales.html에서 재인용). 이들 중 성 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는 44%이었는데 콘돔에 대한 십대 남자 청소년의 태도는 이것을 사용하거나 파트너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콘돔을 구입하는 것이 번거롭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성 관계시의 즐거움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더 부정적이었다. 성경험이 있는 남자 청소년 중에서 14%가 상대방을 임신시킨 경험이 있고 6%가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꼭 참여할 필요가 있다. 1988년 NSAM 자료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의 콘돔 사용율이 1979년부터 1988년까지 2배가 되었는데 이것은 십대 임신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에는 십대 남자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남자도 포함될 필요가 있는데 10대 후반의 여자 청소년의 파트너는 십대 남자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남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자를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칭도 men's participation, men's responsibility, male motivation, male involvement, men as partners, men and

reproductive health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www.jhuccp.org/pr/j46/j46chap1_3.stm). Population Report에서는 men's particip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임신관련 건강의 획득을 위한 남자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참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 나라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찾고자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남자 청소년 대상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프로그램 유형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 프로그램참가자의 특성, 프로그램 활동의 특성, 프로그램 내용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될 수 있다.

우선 프로그램 주최기관에 따른 분류를 보면, 우선 클럽이나 청소년단체, 학교, 클리닉, 사법기관, 지역사회에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 주최기관별 프로그램명은 다음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각 프로그램 주최기관별 남자 청소년 대상 임신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관기관	프로그램 명
클럽 및 청소년단체	Always on Saturday, Hartford Action Plan/ Hartford, CT
	Brothers to Brothers, Wake County Health Department/ Raleigh, NC
	Fifth Ward Enrichment, Houston, TX
	Male Youth Enhancement Project, Shiloh Baptist Church/ Washington, DC
	Project Alpha Phi Alpha Fraternity, San Jose, CA
학교	Compass,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Inc./ Fort Worth, TX
	Dads Make a Difference,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 Service/ St. Paul, MN
	It Takes Two, Young Women's Resource Center/ Des Moines, IA
	Project MISTER, Medina Children's Services/ Seattle, WA
	Responsive Fathers Program, Philadelphia, PA
	Wise Guys, Family Life Council of Greater Greensboro/ Greensboro, NC
	Youth Educ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The Urban League of Eastern MA/ Roxbury, MA
고용기관	Young Dads Program
클리닉	Baylor Teen Health Clinic, Baylor College of Medicine/ Houston, TX
	HiTOPS Inc., Princeton, NJ
	Male Involvement Program, Healthy Teens Center/ Landover, MD
	Male Involvement Program, Planned Parenthood of Nassau Co./ Hempstead, NY
	Male Outreach Program, Valley Community Clinic/ N. Hollywood, CA
사법기관	Men's Services Program, Baltimore City Healthy Start, Inc./ Baltimore, MD
	Young Men's Clinic, Columbia University, Presbyterian Hospital/ New York, NY
	Teen Parenting Skills Project, Bernalillo Co. Juvenile Detention Center/ Albuquerque, NM
지역사회	Hablando Claro/Plain Talk, Logan Heights Family Health Center/ San Diego, CA
	Hombres Jovenes con Palabra, Los Angeles, CA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남자 청소년 대상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유형화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참가자의 연령, 인종, 참가자 집단의 위험행동 정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가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초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후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다.

초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Responsive Fathers Program(11-14세), Wise Guys(11-15세), Youth Education and Development Program(8-15세) 등이 있고, 후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Young Dads Program(17-26세)가 있는데 후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적은 것은 예방의 효과가 나이가 어릴수록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초기에서 후기 청소년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참가자의 인종이 대체로 흑인 청소년인 경우, 라틴계 청소년인 경우, 모든 인종 포함인 경우로도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는데 흑인 청소년이 중심인 프로그램으로는 Brothers to Brother, Fifth Ward Enrichment 등이 있고 라틴계 청소년이 중심인 프로그램으로는 Hablando Claro/Plain Talk 등이 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모든 인종을 포함하는데 이와 같이 흑인 청소년과 라틴계 청소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이 백인 청소년이나 아시안계 청소년들보다 더 임신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일반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도 있고 위험집단 청소년 혹은 이미 문제를 일으킨 집단의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고 위험집단 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집단에게 제공되는 프

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Teen Parenting Skills Project는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신 예방 프로그램이다. 문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임신예방 프로그램보다는 성폭력 예방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대부분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임신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거나 임신 이외의 학교중퇴, 약물사용, 범죄와 같은 다른 문제행동을 모두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신예방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문제행동의 예방도 같이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경향은 성과 관련된 위험요소가 아닌 것들을 다루면서 임신예방을 하는 청소년발달 프로그램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활동도 프로그램마다 다양한데 여기에는 소집단 토의, 견학, 멘토링, 교육/튜터링, 진료서비스, 게임, 또래교사, 스포츠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Brothers to Brother에서는 멘토링이 특징적이고, Baylor Teen Health Clinic에서는 게임을 이용한 방법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독특하고, HiTOPS에서는 또래지도자를 내세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Teen on Track에서는 청소년들이 운동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스포츠리그를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 프로그램사례⁸⁾

(1) Always on Saturday(AOS)

Always on Saturday(AOS)는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워크샵이나 활동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진다. AOS의 주요 목적은 남자 청소년에게 그들이 성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임신을 예방

8) 이 부분은 www.urban.org/family/invmales.html의 일부를 요약·수정한 것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금욕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남자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긍정적인 성인의 역할모델로부터 남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한 견해를 발달시키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하트포드에 있는 세 군데의 저소득, 소수민족 지역사회에서 세 개의 AOS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에는 20명의 남자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AOS에서는 남자 청소년에게 건강교육과 임신과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한 직업훈련, 튜터링, 여가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트포드에 있는 다른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남자 청소년은 건강과 교육, 고용, 기술, 교육과 튜터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소집단토의, 견학, 남자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책임과 생식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 가르쳐줄 성인 멘토링의 방법을 사용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남자 청소년은 연령에 따라 9-13세 집단과 14-18세 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은 연령에 따라 다른 인간발달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① 소집단토의

AOS 집단토의에서는 지역사회(예, 학교, 정부, 가족)안에 있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삶과 연관이 되는지를 논의한다. 남자 청소년들은 감정, 문제해결, 의사결정, 계획, 그리고 목표설정이라는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다섯 가지 열쇠를 사용해서 어떻게 삶에 접근해 가는지를 배운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는 가족에 관한 토의가 될 수 있다. 남자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족구조의 유형에 관해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

들은 각 유형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감정도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남자 청소년들은 미래에 자신이 어떤 가정을 꿈꾸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세션에서는 성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가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항상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다섯 개의 열쇠를 사용한다. 논의되는 주제는 인간 발달, 피임, 성병, 관계, 성행동과 성건강, 폭력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경험이 많은 성인지도자는 각 워크샵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소집단토의를 잘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러한 포럼은 남자 청소년들에게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슈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줄 것이다.

② 견학

AOS 프로그램에서의 견학은 남자 청소년들이 혼자서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둘러봄으로써 임신예방과 관련된 이슈에 관하여 배우도록 해준다. 남자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병원과 같은 곳을 간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임신관련 클리닉과 어떻게 콘돔을 사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약국에 가기도 한다. 또한 완전히 레크리에이션이나 문화적인 목적으로 견학을 가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여가 혹은 문화 시설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들이 성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기 전에 이러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2) Baylor Teen Health Clinic

Baylor Teen Health Clinic에서는 십대들에게 클리닉 서비스와 건강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재미있고 남자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도록 운영하고 있다.

① 클리닉 서비스

클리닉의 대기실에 있는 십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Baylor Teen Health Clinic에서는 이점을 이용했다. 대부분의 클리닉 대기실은 시간을 체크하거나 잡지를 이리저리 뒤적이는 싫증나고 지친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Baylor Teen Health Clinic의 대기실은 상호교류적이고 교육적 활동으로 바쁘다. 건강교육자들에 의해 촉진된 이러한 상호교류적인 세션은 대부분 “불운의 바퀴(The Wheel of Misfortune)”나 “콘돔 빙고”와 같은 게임의 형태를 띤다. 또한 콘돔 클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클럽의 참가자들은 매번 그들이 올 때마다 성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임신하지 않으면 귀거리, 화장품, 학용품과 같은 상품을 받는다.

② 지역사회 아웃리치와 교육

특별히 남자를 위해서 Baylor Teen Health Clinic에서는 지역사회의 남자를 타겟으로 하는 “남자만을 위한(For Males Only)”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토요일 아침에 워크숍을 하고 오후에는 농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는 십대 임신, 생활기술, 약물과 알콜, 성과 같은 것이다. 약 40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 남자들이 참가하는데 이들은 하우스링 프로젝트, (소년)집행유예 센터, 학교와 같은 곳에서 온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학교중퇴 비율을 감소시키고 학업성취를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

을 알게 하고 직업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Baylor Teen Health Clinic의 교육자들은 학교, 교회, 지역사회의 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교육시키기도 한다. 두 명의 남자 건강 교육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흑인 남자 청소년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각각의 교육자들은 매년 10 혹은 12개의 학교를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토픽을 정해 교육한다. 토픽은 대개 집단폭력, 성병, 성, 임신조절, 부모되기, 데이트와 같은 것이다.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에서 건강교육자들은 십대에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클리닉의 위치와 서비스를 알려주고 남자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3) Brothers to Brother

Brothers to Brother의 기본 전제는 가치, 목표, 문화적 자긍심을 남자 청소년들이 가지는 것이 원치 않는 임신, 약물사용, 범죄를 감소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housing authority projects(65%)와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35%)에 참가하는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긍심과 목표, 성, 관계와 같은 인간발달에서 다루는 10개의 토픽으로 구성된 가족생활 교육과정을 통해서 남자 청소년들을 가르친다. 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그룹토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래집단을 위한 멘토로 활동한다.

매 세션마다 직접적으로 임신예방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개념은 남자 청소년들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적 자긍심의 표현의 경우 직접적으로 임신예방을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긍정적 자기 이미지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다시 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좀 더 책임감있는 의사결정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 전반의 네

세션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체감과 프라이드를 더 강하게 발달시키는 목표, 가치, 일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하여 그들은 성행동, 약물사용, 폭력과 같은 것에 대한 옵션들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집단에서는 이러한 행동의 문제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토의한다. 남자 청소년들은 문화박물관, 흑인이 소유한 가게, 건강관련 기관과 같은 곳으로 견학을 가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참가자들은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티셔츠나 공책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다.

비록 교육과정이 단지 5주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5주 후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남자 청소년들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계속 발달시키기 위해 멘토들은 남자 청소년들을 2주에 한번씩 그 후 6개월 동안 계속 만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멘토들은 남자 청소년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견학을 같이 가고 그들의 진보상태를 모니터한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 또래 멘토들은 남자 청소년을 매 3개월마다 계속해서 만나서 그들의 상태를 점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기적인 추수지도는 7-8개월 정도만 지속되는데 그것은 참가자들이 대체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의 부모들을 프로그램에 관여하도록 한다. 5주와 8주에 있는 가족생활교육 세션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배운 정보를 부모와 함께 나누는 부모의 날 행사를 한다.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종종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기도 한다. 졸업식도 거행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년에 한 번 프로그램의 현 참가자, 과거 참가자, 부모들이 함께 모여 문화적 행사를 벌이도록 하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교육적인 자료를 전시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음식점에서 후원한 음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강축제(health fair)를 벌인다. 건강관련 정보뿐 아니라

건강 및 구강검진도 제공된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Mr. Teenage Ebony Male Scholarship Showcase이다. 이것은 자신의 장기를 자랑하는 코너인데 우승자는 500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남자 청소년들은 대체로 노래, 그림, 시 낭송, 춤 등을 자랑한다.

(4) Compass

Compass의 코디네이터는 남자 청소년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 여자, 관계에 대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십대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에 대해 직접 논의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여 졸업을 하도록 하거나 폭력에 참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활동을 격려한다. 또한 성행동과 임신 예방에 대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첫 단계로서 자기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12주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예방 교육으로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중·고등학생용의 교육과정에서만 임신예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청소년(초등학생을 제외한) 임신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더 맞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한시간의 소집단 세션의 형태를 띄고 있다.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 상호신뢰감을 형성하고 보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처음의 몇 세션에서는 성과 관련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초기의 토픽은 또래압력, 자긍심, 학교중퇴, 약물과 알콜사용, 갱에 관한 것이다. 일단 집단구성원들이 서로 친해지면 지도자는 관계와 의사결정, 피임, 성병, 남자의 책임, 성역할과 같은 성에 관한 주제로 토론하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적으로 활발하게 행동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금욕이 실행가능 하면서도 훌륭한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남자 청소년이 금욕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기는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집단활동과 더불어 정기적인 세션동안 일대일의 활동도 이루어진다. 참가자가 원하면 정규 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의 메시지는 성숙하지 않은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이 젊은이의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도자는 참가자들에게 일찍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공부하기 어려움,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변화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처음에는 십대에 아버지가 된 자신을 그려보게 하고, 다음에는 아이가 없는 건강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참가자는 자신에게 더 흥미있는 시나리오를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집단 토의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에서는 Compass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메시지 적극적인 참여와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한다. 활동들 중에서 empathy belly⁹⁾를 착용함으로써 특별히 남자 청소년들에게 임신했을 때의 불편함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5) Dads Make a Difference(DMAD)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또래들이 주도하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인데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아버지의 법적, 재정적, 정서적 책임을 알게 하고, 일찍 아버지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9) 임신했을 때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몸에 착용하는 것이다.

것이다.

DMAD는 청소년들이 성행동과 부모되는 것을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에게 성행동의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법적, 재정적 정서적 책임을 상기시킨다. 여기에서는 주로 금욕과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 피임을 하거나 피임도구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DMAD 교육과정에 통합될 수도 있는데 그 여부는 지역 교육청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성적으로 활발한 청소년들을 임신이나 성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DMAD에서는 또래 주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남녀 학생을 짝으로 하여 그들이 사는 지역의 중학교에서 또래교사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또래 주도적인 방법은 집단의 참가자들이 건의하여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한 참가자가 “만일 아버지가 된 청소년이 와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앉아서 들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래교사 훈련 세션은 2일 동안 진행되는데 중학생용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기술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내용을 배우도록 되어있다. 예비 또래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연습을 하고, 실제 교실에서 그들이 질문을 받게 될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 경험해 본다. 또래교사 훈련의 기본적 개념들을 다음과 같다.

- 가족이라는 개념이 과거보다는 오늘날 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진다.
-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아동을 양육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 아버지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동, 어머니, 아버지에게 혜택을 준다.
- 청소년들은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 사람들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을 조정한다.

-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만일 훈련을 받기만 하면 또래들은 아주 강력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고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다.

훈련팀은 한 명의 남자 성인 트레이너, 한 명의 여자 성인 트레이너, 아동지원전문가, 그리고 전에 훈련을 받았고 지도력을 갖춘 또래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장소는 집단의 크기와 후원단체에 따라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등 어느 곳이나 될 수 있다. 트레이닝 세션은 밤새도록 진행될 수도 있고 낮에만 진행될 수도 있다.

훈련을 받고 나서 고등학생들은 각각 자신의 학교로 돌아가는데 그 곳에서 중학생에게 네 파트의 교육과정을 가르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한 쌍의 남녀 학생과 성인 슈퍼바이저를 보내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메시지의 내용과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의 실행과 결과는 지역 교육청에 달려있다. 이 프로그램은 네 개의 50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DMAD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개의 모듈은 다음과 같다.

수업 1: 위험행동

위험이라는 말을 정의한다.

위험행동을 인지한다.

Dad Make a Difference 비디오: 십대 부모에 관한 18분짜리 비디오

수업 2: 합법적인 아버지 되기

법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에게 혜택을 주는가?

미네소타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

수업 3: 아버지들과 가족들

가족들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가?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

미네소타에서는 아동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수업 4: 의사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위험이 개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있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려보아라.

수업에는 금융, 성관계 미루기, 의사소통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일찍 부모가 된 결과, 아동지원, 아버지 역할 기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위하여 트레이닝 세션과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있다.

(6) Fifth Ward Enrichment Program, Inc.(FWEP)

이 프로그램은 텍사스 휴스턴의 저소득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책임감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저소득층에 사는 많은 청소년들처럼 파괴적인 길을 걷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쓰도록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교육에 대한 가치와 즐거움을 배우고 삶을 신성하게 여기고 책임을 우선시 하도록 교육받는다.

Fifth Ward Enrichment 프로그램에서는 학기 중 방과후나 주말에 여러 활동과 워크숍을 제공한다. 스텝들은 생활기술 수업과 소집단 카운셀링 세션에서 FWEP의 독자적인 “Heros and Legacies”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다른 토픽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러한 워크숍에서는 데이트와 의사소통, 피임, 인간발달과 성, 자기자각, 갈등해결, 진로계획, 약물과 알콜 사용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서비스 워크숍도 개최하는데 여기에서는 “Women Speak,

Men Listen” 패널을 통해서 편모, 직장인 어머니를 포함하는 여성집단이 젊은 남성들에게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튜터링, 개인상담, 소집단 지원 세션과 같은 좀 더 개인적인 수준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여러 측면에서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참가자들에게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견학, 지역사회 서비스, 드라마, 체스, 예술, 캠핑, 경쟁적 스포츠에 활동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기 위해서 FWEP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평화적인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네 가지의 지도력 기술을 촉진한다.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캠핑같은 것을 가는데 이러한 휴식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주고,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청소년과 의사소통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문적 성취는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에 잘 다니고 성적이 향상된 청소년에게 한 달에 한번 H.P. Carter Middle School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점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가게에서는 연필, 티셔츠, 라디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다. FWEP에서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점수가 이들에게 즐거움을 연기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가자들은 점수를 바로 써버리기보다 좀 더 가치있는 것을 사기 위해 점수를 간직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적으로 관련있는 철자암기 시험이나 멕시코어나 흑인들을 주제로 한 창의적 글짓기 프로젝트와 같은 학문적 클럽을 지원한다. 이들은 또한 비학문적 클럽에도 참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참가자들은 Teen Enterprise Group에 방과후 컴퓨터 수리

와 지역사회 정원가꾸기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법 시행관(예, 경찰관), 건강전문가(예, 의사, 상담가), 교회조직과도 협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 심대 클리닉이나 약물과 알콜 지원 그룹과 같은 지역사회의 정보를 참가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때 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활동을 제공한다. 여름활동에는 지역사회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참가자들은 잔디를 깎거나 학교에서 가구를 옮기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하루에 10불씩을 받는다. 15-17세의 남자 청소년들은 자전거 수리, 실크스크린 프린팅, 필름현상, 정원가꾸기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Teen Enterprsing Project에 참가하기도 한다.

(7) Hablando Claro con Carino y Respetto

Hablando Claro con Carino y Respetto는 성적으로 활발한 청소년들을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샌디에고의 로간 하이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성적으로 활발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성인과 기관으로부터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전제로부터 이 프로그램은 시작된다. 많은 심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많은 성인과 기관이 피임에 관한 메시지를 서로 전달해야한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관여가 있기 위해서 많은 지역사회의 성인들이 발달과정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주도의 전략으로 협력과정에서 많은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교육클래스, 거리 구제활동, 기술습득과 트레이닝 세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토픽들은 피임방법, 성관계 지연시키기, 콘돔 사용방법, 성병교육,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기술, 일찍 아이를 낳은 결과, 성폭력과 데이트 강간, 성과 약물/알콜사용, 성역할과 같은 것이다. 주제들은 라티노 문화와 관련해서 논의된다. 교육클래스, 트레이닝 세션, 그리고 이웃과의 워크샵은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은 지역사회를 연합하게 하고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의사소통과 임신예방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은 지역사회의 핵심집단에 의해서 구성되고, 아버지-자녀 장기자랑, 스포츠, 피크닉 등과 같은 행사를 포함한다. 이웃간의 단합을 촉진하는 것 이외에 지역사회 활동은 지역사회 주민과 건강 및 사회서비스 단체의 스태프들 사이에 지원 네트워크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사소통 포럼은 6-8명의 성인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에서 모여서 하게 된다. 이런 포럼은 Vecino-a-Vecino(이웃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이 교육과정은 스페인말로 개발된 네 파트의 성교육이다. 이 교육과정은 아웃리치 워커에 의해서 훈련되고 슈퍼바이즈된 Promotoras라는 핵심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가르쳐진다. 4주간의 코스에는 Hablando Claro 프로그램의 소개, 사춘기와 성발달, 해부학과 생리학, 임신관련 건강과 피임, 자궁심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다섯 개 모듈이 있다. 역할연기를 통해서 청소년과 성인은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고 인간의 성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다. 이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주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Hombres Jovenes con Palabra(HJCP)(Young Men with Word)

HJCP는 남자다움의 개념을 재정의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네 파트의 교육과정은 남자 청소년들에게 임신예방에 있어서 남성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진정한 남자가 되는 것을 가르친다. 남자다움의 한 측면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8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세션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90분에서 3시간까지 다양하다. 각각의 네 파트는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집단의 상호작용 활동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네 개의 교육과정 구성요소들은 각각 만들어졌는데 서로 합해져서 단어의 정의를 구성하게 된다. Palabra 혹은 word는 이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은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하려는 것이라라는 아이디어에 기본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세션 1: 이 세션에서는 남자와 말(word)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가족구성원, 친구, 여자친구 등에 대해서 탐색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다란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집단에서는 성과 성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슈를 다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탐색한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갖기는 원하지만 콘돔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집단구성원에게 물어본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한 참가자들은 “에이즈에 걸렸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와 같은 결과카드를 받게 된다. 이 결과카드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게 된다.

세션 2: 여기에서는 남자다움과 남성(manhood and maleness)의 차이에 중점을 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성은 성적 충동과 기대를 포함하는 남자의 생리학과 사춘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남자다움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피임을 함으로써 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션 3: 이 세션에서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인생의 고통, 딜레마, 도전으로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인생의 도전들은 남자 청소년과 그들의 파트너를 위험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코요테가 되고 싶지 않은 코요테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싶고 곰처럼 혼자 있고 싶고 사자처럼 공격적이 되고 싶어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 청소년은 정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들은 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정형화된 잘못된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여기에서는 진정한 남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재정의하고 반복되는 사이클로 이끌 수 있는 깊은 고통에 대해서 탐색한다. 특히 아버지 없이 자란 청소년들에게 이 세션에서는 성병감염과 특별히 증상에 대해서 알려준다.

세션 4: 여기에서는 진정한 남자가 되는 것에 대해 그들이 배운 개념을 응용하도록 하는 역할연기를 한다. 촉진자는 남자 청소년이 배웠던 원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성이나 폭력을 묘사한 상황을 제공한다. 집단구성원은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말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남자 청소년과 어울린다든지, 원칙에 초점을 맞추든지 자신에게 정직하든지 하는 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다.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것에는 만일 자신이 성적으로 활발하게 행동한다면 피임을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 마지막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의 리소스가 적혀있는 Palabra 카드를 받게 된다.

(9) Male Involvement Program by Health Teens Center

Healthy Teens Center의 Male Involvement Program은 남자 청소년들이 아기를 낳거나 성병에 감염되는 것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 그들의 성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인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일체의 임신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남자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사를 만나기

전에 새 참가자는 남자 코디네이터가 주관하는 집단 혹은 개인 교육 세션에 참가한다. 이 세션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성병, 피임, 의사 소통, 여자 파트너에 대한 폭력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남자 청소년은 자신에게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남자 코디네이터는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피임방법을 소개해준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스포츠 신체검사(sports physicals)를 제공한다. HTC의 직원들은 남자 청소년들이 스포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클리닉에 오는 것을 기회삼아 임신관련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건강문제를 논의하기도 한다.

스포츠가 남자 청소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고 스포츠 스타가 모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데이트 강간, 폭력, 혼외정사로 인한 임신 등과 같은 성관련 문제를 일으킨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도 그들의 행동은 따를만한 모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스포츠를 통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규칙, 더 나아가서 성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성이 성행동에 관해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하다고 여긴다.

젊은 아버지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관심있는 참가자들에게 Northwestern High School Young Fathers Program을 소개하고 있다. 이 클래스는 아버지이지만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된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다. 목적은 앞으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젊은이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에게 자녀양육권에 대한 권리와 자녀지원에 대해서 가르쳐주

고 그들의 진로계획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어떻게 자녀에게 재정적/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

(10) Male Involvement Program by Planned Parenthood of Nassau County(PPNC)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이고 솔직한 정보와 논의가 결국에는 남자들에게 임신예방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남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고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프로그램은 집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되는 일련의 워크샵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샵은 대체로 사춘기, 해부학, 피임, 성병, 성관련 의사결정, 가치명료화, 의사소통, 자긍심, 약물과 알콜 사용, 성폭력과 데이트 강간, 일찍 아기를 낳음으로써 생기는 결과와 같은 주제에 대한 일련의 프리젠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대안과 성관계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남자 청소년들이 생각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이 12-22세의 남자 청소년을 위한 것이므로 내용과 강조점은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중학생과 같이 어린 남자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 해부학과 생리학,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기술이 대체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남자 청소년들은 성병과 피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많은 후기 남자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활발하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레벨에서 “남자는 언제나 성관계 가지기를 원하다”와 같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신화를 깨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을 제공하고 성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또한 장려된다.

많은 워크샵에서는 참가자들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 억지선택(forced-choice) 활동이 있다. 이런 상황에는 만일 좋아하는 여자가 성 관계를 갖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것이 포함되는데 참가자들은 이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와 각각의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젊은 남성들이 성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들은 실제로 여자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고 질문하기가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용어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것이 PPNC health center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더 많은 정보, 피임방법, 성병관련 정보와 치료, 에이즈 테스트와 상담이 필요하면 건강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 Male Youth Enhancement Project(MYEP)

MYEP는 한 목사가 길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이들에게 할 일과 갈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흑인 청소년인데 이들에게 흑인역사, 문화적 프라이드, 가치 등을 강조하여 흑인 남자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시-7시까지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디자인되었다. 프로그램은 아주 규칙적으로 운영되는데 남자 청소년들은 1시간 15분 동안 숙제와 학교공부를 한다. 그들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그 후 30-45분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교육과정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워크샵을 한다.

이것을 랩 세션(rap session)이라고 한다. 여가나 개인의 튜터링을 위한 시간도 있다. 여름에는 공부를 보충하고 교육적이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견학을 간다.

생활기술은 워크샵과 랩 세션에서 배우게된다. 워크샵은 MYEP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끌어 지는데 내용은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을 8-10세, 11-13세, 14-18세의 세 연령집단으로 나눈다. 8-10세의 남자 청소년집단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성장, 학교에서 잘 행동하기, 아버지 없이 성장하기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종종 어린 남자 청소년은 어린 나이에 집에서 성인남자의 역할에 대한 압력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완충지대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어린 남자 청소년에게 그들은 아직 어리고 성인남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장하는데 따르는 문제들을 말하면서 11-13세의 소년들은 성에 관한 문제도 다루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금욕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피임, 성병, 의사소통, 의사결정 기술과 같은 주제도 논의된다. 자체적인 프로그램 이외에도 여기에서는 일년에 두 번 열리는 워크샵에서 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또래 교사를 초청하기도 한다.

14-18세의 청소년은 통과의식이라고 불리는 16파트로 이루어진 남자다워지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게 된다. 이 통과의식은 성과 의사소통의 두 요소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직업기술 훈련, 재정관리,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미국 흑인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는 수료증을 준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온 성인남자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 참가자와 일대일로 몇 시간을 같이 보낸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요청에 의해

멘토와 만나게 된다. 멘토와의 관계가 튼튼할수록 멘토와 참가자들은 두 사람이 즐기는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부모들도 가능한 한 많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들이 서로 만나서 자녀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고 자녀를 기르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돕는 지원집단을 격려한다. 이와 더불어 이 집단에서는 자금모집이나 교육과정과 활동의 내용과 같이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이 집단은 학기가 계속되는 1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멤버인 내과의사들이 일년에 한 번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준다.

(12) Project Alpha

Alpha Phi Alpha Fraternity, Inc. 와 March of Dimes Birth Defect Foundation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알파는 지역의 Alpha Phi Alpha Fraternity 지부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세 파트의 임신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마다 그 형태와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게 실시된다. 때때로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반나절의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일주일간의 캠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프로젝트 알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남자들로 하여금 임신예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남자 청소년과 지식이 많은 성인 사이에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청소년들이 그들이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한시간의 프리젠테이션, 하루종일의 워크숍, 일주일간의 캠핑 중 어느 것이든지 모든 활동은 지식, 태도, 기술이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임신예방의 혜택을 진정으로 감사하기를 바란다. 지도자의 도움으로 각각의 Alpha Phi Alpha 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 참가자에게 가장 적절한 활동들을 통하여 이 요소들을 잘 조화시켜 나간다.

① 지식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남자 청소년이 사실적 정보로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는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정보들이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그는 성(생리학, 성병, 피임)에 관한 부분은 비뇨기전문가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는 특히 질문하는 세션에서 중요한데 그것은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신화와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때때로 기본적인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지식습득 요소는 각각의 특정집단에 맞게 조절될 수 있다. 주제는 대체로 성, 사회성 발달, 사회의 영향과 십대 부모되기의 결과, 부모되기의 법적 시사점을 다루게 된다. 사회적 및 법적 이슈를 다룰 때 십대의 임신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가나 사회사업가가 하는 것이 좋다고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생각한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에다 흡연이나 약물사용과 같은 이슈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② 태도

동기요소는 남자 청소년에게 그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사회로 그들이 새로 습득한 지식을 반영하는 도구가 된다. 그들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전에 남자 청소년은 우선 그들 자신의 가치를 탐색하고, 그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남자 청소년이 금욕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그는 이 정보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돌아가서 성행동 연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할 것이다. 성행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남자 청소년은 피임 사용을 더 강조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프로젝트 알파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금욕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100%의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 택하는 입장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에 달려있다.

③ 기술

프로젝트 알파의 마지막 요소는 참가자들이 그들이 배운 지식을 더 큰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이 요소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한다. 어떤 비교적 단순한 옵션은 참가자가 그들의 학교의 집회시간에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교사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④ 프로그램 실시 옵션

프로젝트 알파는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비록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한 시간의 프리젠테이션이 남자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일간의 세션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다. 하루 동안의 컨퍼런스는 비용이 절감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게 되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말 이틀동안의 캠프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좋다고 생각된다. 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편

안함을 느끼게 하고, 주말은 또한 진행자들이 주제에 더 깊게 접근하고 청소년들이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할 시간을 준다. 마지막으로 세션 사이의 휴식시간은 십대들에게 그들이 수업시간에는 질문하기 어려웠던 것을 일대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전형적인 캠핑에서 남자 청소년과 진행자는 대개 지역사회의 캠핑장에 간다. 낮에는 교육적 워크샵, 집단토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저녁에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배웠던 정보를 랩이나 짧은 희극과 같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캠핑에서는 대체로 한 명의 리더가 50명의 남자 청소년을 맡게 된다.

(13) Teens on Track

스포츠만큼 남자 청소년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Planned Parenthood of Southern New Jersey(PPSNJ)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남자 청소년에게 레크리에이션, 교육, 그리고 의학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세 갈래 접근이라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목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십대 남자들의 건강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레크리에이션과 조직화된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배우고 노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바람이다.

① 지역사회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이 프로그램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교육이 레크리에이션을 먼저 하고 남자의 책임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춘 한 시간의 교육세션이 그 후에 제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YMCA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프로그램이 1990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남자 청소년들이 흥미

를 끝마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마련했다. 이러한 활동에는 십대들을 위한 밤, 문화행사, 농구, 수영, 파티, 춤추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 십대들을 위한 밤, 문화행사, 농구와 수영은 참가자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데 성공적인 것들이었다.

② 십대들을 위한 밤

이 행사는 YMCA에서 일년에 여덟번 토요일에 이루어졌다. YMCA에 도착하면 십대들은 프로그램의 주소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또래 상담자에게 등록을 한다. 이 행사의 첫 활동은 남자의 임신관련 건강과 성에 관한 한 시간의 교육이다. 이 시간에는 남자의 책임, 자긍심, 의사소통의 주제에 관해서 랩 세션, 외부 초청인사, 워크샵이 이루어진다. 한 시간의 교육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농구나 수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십대들을 위한 밤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수는 프로그램 계획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십대들을 위한 밤은 30명 정도의 참가자들을 예상하고 계획되었다. 그런데 YMCA에는 첫 날 10-18세의 106명의 남자 청소년이 몰려들었다. 두 번째 행사에는 75명을 예상했으나 130명이 참가했고, 지금은 주소록에만 600명의 청소년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③ 스포츠리그

두 개의 농구리그와 두 개의 수영리그가 매년 조직되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만나는 모임이 6주에서 8주간 계속 된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팀들은 YMCA의 농구와 수영리그에 들어간다. 각 미팅에서 처음 30-45분은 남자의 성과 임신관련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시즌 말에는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파티가 열린다.

YMCA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지역사회 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방과후 활동을 조직한다. 첫 시간은 남자의 책임, 임신관련 해부학과 생리학, 피임,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 두 번째 시간에 십대들은 지역사회 센터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약 2년 전 이 프로그램의 스텝들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이외에 참가자들의 흥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집단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이러한 활동들은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원단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세션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여행은 자연과학 아카데미, 프랭클린 연구소, 제지공장으로의 견학이었다. 가장 최근에 참가된 활동은 주말캠핑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십대들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팀형성 기술을 배우게 된다. 집단여행이나 캠핑은 12-15명의 십대들이 참가한다.

TNT 활동과 더불어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지역의 공립학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기도 한다.

(14) Wise Guys

Wise Guys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금욕만이 성병과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피할 수 있는 100% 안전한 방법임을 강조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남자 청소년에게 지식을 제공해주고, 스스로를 존중하도록 격려하고,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향상시키고,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남자 청소년에게 정확한 성지식을 제공하고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그곳에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 임신예방과 더불어 Wise Guys에서는 데이트 폭력, 성학대, 건전한 관계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사이의 존중과 같은 이슈를 다룬다.

Wise Guys의 교육과정은 자긍심, 가치명료화, 의사소통, 성, 금욕과 피임, 성병, 의사결정, 목표설정, 데이트 폭력, 부모되기를 포함하는 10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소집단으로 일주일에 한 번 실시되고 10-12주 동안 계속된다. 비록 프로그램의 초점은 임신예방이지만 최근 Wise Guys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성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학교나 대학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의사소통 요소가 자기주장적 기술 형성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반면, 지금은 서로간의 존중과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자는 많은 남자들이 자기또래의 여자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Wise Guys에서는 정서적/성 학대는 오해와 의사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자신의 어머니, 누이, 혹은 할머니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기 또래의 여자들을 대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한 남자 청소년에게 현재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평가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평가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청소년을 위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대상에 남자 청소년을 포함시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는 지난 20여년 간 십대의 임신율이 감소한 것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임신예방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면 “Baby Think it Over”라는 10대 임신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도록 고안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유아를 기르는데 대한 부담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 유아는 컴퓨터화된 아이로 유아의 전형적인 모습인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 주로 예측 불가능하게 울어대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아기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험적 연구에서 효과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각 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다(Somers & Fahlman, 2001).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 평가는 실시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공식적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으로는 Brothers to Brother, Dads Make a Difference, Wise Guys가 있다.

Brothers to Brother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1994-95년에 AFCOM 컨설턴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평가에서 참가자들은 금욕이 임신예방에 좋은 선택이라거나 피임이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신념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증가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Wilder Research Center(St. Paul, MN)가 1995년 가을에 실시한 평가에서는 첫째 십대교사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훈련의 효과, 둘째 교육과정을 이수한 중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영향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훈련결과, 십대교사들은 아버지역할을 정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합법적인 아버지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을 아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중학생들은 아버지역할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

1990년과 1994년에 Philliber Research Associate에 의해서 실시된 Wise Guys에 대한 공식적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연구자는 335명

의 프로그램 참가자와 145명의 비참가자를 프로그램 참가전과 6개월 후에 비교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 증가, 향상된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둘째, 프로그램 참가 전에 성적으로 활발했던 남자 청소년은 피임사용에 있어서 28% 증가율을 보인 반면 비참가자는 피임사용이 오히려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항상 피임을 한다는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프로그램 참가 전보다는 후에, 그리고 참가 바로 후보다 6개월 후에 더 증가했다. 반대로 통제집단에서는 전혀 피임하지 않는다는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대상별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 남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 남녀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동시에 평가한 연구는 없다는 것이다.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이 십대 청소년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대상을 남자 청소년이나 남녀 청소년을 모두 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임신예방과 관련 있는 기관사이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 진행자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주관기관에 남자 지도자가 필요하다.

셋째, 남자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흥

미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주제는 남자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상호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위하여 다른 내용과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곱째, 단기간의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의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여덟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임신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예, 청소년발달) 임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V. 프로그램 평가 및 정책제언

1. 시범캠프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2. 정책제언

V. 프로그램 평가 및 정책제언

1. 시범캠프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1) 시범 캠프 개요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공동으로 남자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캠프를 실시하였다. ‘니들이 멋진 남자를 알아’라는 슬로건 하에 서울YMCA 다락원 캠프장에서 2002년 11월 2일(토)과 11월 3일(일),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 시범캠프 취지 및 목표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일환으로써 잠정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현실 적합성과 효과성, 참가자의 흥미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캠프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폐해를 알고 양성평등적인 성 정체성을 확립한다.
- ② 몸에 대한 자기 이미지를 자각하고 몸의 생명력을 체험한다.
- ③ 성 충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④ 성 건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른다
- ⑤ 자기의 관점에서 인간관계의 유형(이성, 아버지)을 성찰하고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 ⑥ 우리사회의 성 관련 이슈인 성폭력, 성 매매 등 성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처능력을 기른다.

(2) 캠프 일정 및 프로그램

학생들이 학기 중인 여건을 고려하여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의 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짧은 일정 상 본 프로그램에서 새로이 시도되는 단위활동을 우선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일정과 활동내용은 <표 V-1>과 같다.

<표 V-1> 시범캠프 일정 및 활동내용

일시		활동 내용
11/2(토)	15:00-16:00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16:00-18:00	몸과 소통하기
	18:00-19:00	저녁식사
	19:00-20:20	남성성 이해하기
	20:40-22:00	좋은 아버지 되기
	22:30-24:00	성 충동과 자기관리
11/3(일)	6:00-7:00	기상 및 세면
	7:00-8:00	춤 명상
	8:00-9:00	아침식사
	9:00-10:20	책임과 안전한 성
	10:40-12:00	성문화 뒤집어보기(50분 토론)
	12:00-13:00	소감 나누기
	13:00-14:00	점심식사

* 음영부분은 본 프로그램의 단위활동임.

본 캠프에서 시도된 단위활동은 6개 주제 영역의 남성성 이해하기, 좋은 아버지 되기, 자기관리와 성 충동, 책임과 안전한 성, 몸 이미지 관련 자각, 한국사회 성 관련 사회문제 토론 등이었다.

(3) 지도력의 구성

본 캠프의 지도력은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스텝 4명, 성교육교사회 소속 지도자 3명, 외부강사 3명, 대학생 자원지도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연구진은 전체 진행과정을 지원하고 관찰하였다.

(4) 캠프 참가자의 특성

본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서울소재 6개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17명과 전북소재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0명으로 총 27명이었다. 27명 중 고2 재학생은 3명이었고, 나머지 24명은 모두 고1 재학생이었다.

캠프 참가자의 구성은 <표 V-2>와 같다.

<표 V-2 > 캠프 참가자의 구성

구 분	고1	고2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 (서울소재 6개 학교)	14명	3명	17명
대안학교 (전북소재 1개 학교)	10명	-	10명
전체	24명	3명	27명

본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총 7개 학교 학생이었으며 짧은 일정 상친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참가자간 친밀감 형성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진행 전반에 걸쳐 전체 그룹보다는 학교별로 친한 양상이 강하였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우, 모두 1개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복장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기타 인문계 고등학교 참가자들과 확연히 구분되어 특히 캠프 초반에는 서로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 프로그램 평가

시범캠프를 통하여 본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본 캠프의 청소년 참가자 평가이다.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청소년의 성지식/성태도/성행동경험 수준 및 단위활동 효과 측정, 캠프 및 단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조사되었다. 또한 캠프의 최종 일정인 소감나누기를 통해 캠프에 대한 청소년 참가자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개발팀의 평가이다. 프로그램개발팀은 캠프의 지도력으로 참여하면서 캠프 전체 일정을 관찰하며 평가하였다. 매일 그날의 일정을 마친 후 지도자 모임을 가졌으며 단위활동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참여자 반응 등을 종합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방향을 설정하였다.

(1) 청소년 참가자 평가

사전, 사후 검사에는 27명의 참가자 중 수거된 25개의 설문지가 사용되었고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를 실시하였다.

① 캠프참가 청소년의 사전 성지식/성행동경험 수준

먼저, 캠프 참가 청소년들의 사전 성지식 수준은 <표 V-3>과 같다.

<표 V-3> 캠프참가 청소년의 성지식 수준

단위 : 사례수(%)

문항	예	아니오	전체
생리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다	18(69.2)	8(30.8)	26(100.0)
콘돔은 성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27(100.0)	-	27(100.0)
성폭력 가해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성적 욕구가 더 많다	13(48.1)	14(51.9)	27(100.0)
일반적으로 여성을 강간을 거부하면서도 쾌감을 느낀다	3(11.5)	23(88.5)	26(100.0)

먼저 사전 성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생리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다’에 대해 69.2%, ‘콘돔은 성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에 100%, ‘성폭력 가해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성적 욕구가 더 많다’에 51.9%, ‘일반적으로 여성을 강간을 거부하면서도 쾌감을 느낀다’에 대해 88.5%가 정확한 성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콘돔이 성병예방의 방법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00%의 참가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반면 성폭력 가해자가 보통 사람들 보다 성적 욕구가 더 많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1.9%의 참가자만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성지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참가 청소년의 성행동 경험 수준을 묻는 질문은 총 11문항이었으며 응답결과는 <표 V-4>와 같다. 임신과 낙태, 성병의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참가자 전원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를 했었거나 지금하고 있다’는 37.0%, ‘키스를 한 적이 있다’ 29.6%, ‘자위행위를 해본 적이 있다’ 74.1%, ‘성 관계를 한 적이 있다’ 11.1%, ‘길거리에서 이성친구와 손을 잡고 다닌 적이 있다’ 48.1%, 포르노 비디오처럼 성 관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40.7%, ‘인터넷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 96.3%, ‘성기와 노골적인 성행위가 묘사되어 있는 매체를 본 적이 있다’ 92.6%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참가자들의 성행동 경험 수준을 보면 음란매체 접촉경험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자위행위이며 이성교제, 손을 잡고 다니는 정도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40-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10% 수준으로 다른 조사 결과와 유사수준이다.

<표 V-4> 캠프참가 청소년의 성행동 경험수준

단위 : 사례수(%)

문 항	예	아니오	전체
이성교제를 했었거나 지금 하고 있다	10(37.0)	17(63.0)	27(100.0)
키스를 한 적이 있다	8(29.6)	19(70.4)	27(100.0)
자위행위를 해본적이 있다	20(74.1)	7(25.9)	27(100.0)
성관계를 한적이 있다	3(11.1)	24(88.9)	27(100.0)
길거리에서 이성친구와 손을 잡고 다닌 적이 있다	13(48.1)	14(51.9)	27(100.0)
포르노 비디오처럼 성관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11(40.7)	16(59.3)	27(100.0)
인터넷에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	26(96.3)	1(3.7)	27(100.0)
성기와 노골적인 성행위가 묘사되어 있는 매체(비디오, 만화, 잡지, 사진, 소설, 게임 등)을 본 적이 있다	25(92.6)	2(7.4)	27(100.0)
임신을 하게 한 경험이 있다	-	27(100.0)	27(100.0)
낙태를 하게 한 경험이 있다	-	27(100.0)	27(100.0)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	-	27(100.0)	27(100.0)

② 캠프참가 청소년의 사전·사후 성 태도

캠프참가 청소년들의 성태도는 남성으로서의 성 정체성, 성충동 조절, 아버지 역할이해, 성행동 책임, 신체이미지 자각, 성문화인식 등 6개 하위척도, 총 2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사전, 사후 설문조사지의 하위척도별 해당문항번호는 <표 V-5>와 같다. 청소년의 성태도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 결과, 6개 문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 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V-5> 성태도 하위척도별 해당문항

하위척도	문항수	해당문항번호
성정체성	4	1, 7, 13, 18
성충동 조절	4	2, 8, 14, 19
아버지역할이해	4	3, 9, 15, 20
성행동 책임	7	4, 10, 16, 21, 23, 24, 25
신체 이미지 자각	2	5, 11
성문화 인식	4	6, 12, 17, 22

성 정체성

성 정체성 관련 문항 중 조금이라도 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2개이다. ‘나는 여자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에 대해 사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4.0%), 그렇다(20.0%), 그저 그렇다(48.0%), 그렇지 않다(16.0%), 전혀 그렇지 않다(12.0%)로 여자 같다는 말에 기분이 상한다는 응답이 24.0%이었다. 그러나 사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4.3%), 그렇다(13.0%)로 기분이 상한다는 응답이 17.3%로 줄어들었다. 반면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그렇지 않다(17.4%)’, ‘전혀 그렇지 않다(8.7%)’로 26.1%로 증대되었다(표 V-6 참조).

<표 V-6> '나는 여자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에 대한 사전·사후반응

단위: 사례수(%)

조사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사 전	1(4.0)	5(20.0)	12(48.0)	4(16.0)	3(12.0)	25(100.0)
사 후	1(4.3)	3(13.0)	13(56.5)	4(17.4)	2(8.7)	23(100.0)

남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먹을 쓸 수 있다'의 질문에는 사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24.0%), 그렇다(36.0%)로 60%의 청소년이 남자의 폭력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렇지 않다(16.0%)고 폭력사용을 부정하는 청소년은 소수였다. 그러나 사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21.7%), 그렇다(26.1%)가 47.8%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표 V-7 참조).

<표 V-7> '남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먹을 쓸 수 있다'에 대한 사전·사후반응

단위: 사례수(%)

조사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사 전	6(24.0)	9(36.0)	6(24.0)	4(16.0)	-	25(100.0)
사 후	5(21.7)	6(26.1)	9(39.1)	2(8.7)	1(4.3)	23(100.0)

성 충동 조절

'성욕은 이성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해 사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29.2%, 그렇다가 37.5%로 67.0%가 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후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39.1%, 그렇다 30.4%로 69.5%가 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성욕은 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응답은 조금 늘어났다. 반면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반응은 사전조사에서

는 8.2%의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0%의 반응을 보여 줄어들었다. (표 V-8 참조).

<표 V-8> '성욕은 이성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한 사전·사후반응

단위: 사례수(%)

조사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사전	7(29.2)	9(37.5)	6(25.0)	1(4.2)	1(4.2)	24(100.0)
사후	9(39.1)	7(30.4)	7(30.4)	-	-	23(100.0)

아버지 역할 이해

'여자나 성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에 대해 사전조사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16.7%이고 나머지 청소년은 그저 그렇다 이하의 반응을 보여 아버지와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이 매우 소수임을 알 수 있었다. 사후 조사에는 매우 그렇다(8.7%)와 그렇다(26.1%)의 응답이 34.8%로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9 참조).

<표 V-9> '여자나 성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에 대한 사전·사후반응

단위: 사례수(%)

조사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사전	-	4(16.7)	12(50.0)	6(25.0)	2(8.3)	24(100.0)
사후	2(8.7)	6(26.1)	11(47.8)	2(8.7)	2(8.7)	23(100.0)

성 행동 책임

‘성 관계 후 임신을 했다면 남자보다 여자책임이 더 크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4.2%, 그렇다 4.2%로 8.4%의 청소년만이 여자 책임이 더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45.8%, 그렇지 않다 20.8%로 66.6%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사후조사에서는 그렇다는 청소년은 4.2%로 줄어든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43.5%, 그렇지 않다 30.4%로 그렇지 않다는 청소년은 모두 73.9%로 늘어났다. 프로그램 후 남자 청소년의 성 관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상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10> 성 관계 후 임신을 했다면 남자보다 여자책임이 더 크다

조사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사전	1(4.2)	1(4.2)	6(25.0)	5(20.8)	11(45.8)	24(100.0)
사후	1(4.3)	-	5(21.7)	7(30.4)	10(43.5)	23(100.0)

신체이미지 자각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몸을 통해 사람은 많은 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질문한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에 16.4%, ‘그렇다’에 32.0%로 48.0%의 청소년이 동의하고 있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 8.0%, 그렇지 않다 8.0%로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은 16.0%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30.4%, 그렇다 21.7%로 동의하는 청소년이 51.7%로 늘어난 반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은 0%로 줄어들었다.

프로그램 후 청소년들의 몸에 대한 자각 정도가 조금 증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V-11> 몸을 통해 사람은 많은 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조사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사전	4(16.0)	8(32.0)	9(36.0)	2(8.0)	2(8.0)	25(100.0)
사후	7(30.4)	5(21.7)	11(47.8)	-	-	23(100.0)

이번 캠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문항에서만 사전, 사후의 태도변화 경향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변화경향이 미미했던 것은 시범캠프 진행상의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캠프는 개발된 각 프로그램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캠프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1박 2일의 제한된 시간 안에 소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캠프 프로그램의 장점인 야외활동, 참가원들간의 단합과 친교 등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전체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시하지 못했다. 태도의 변화는 오랜 시간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실시기간 보다 대단히 짧은 시간동안 압축되어 실시되었기에 참가자들의 태도에 상당 수준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당초부터 무리라고 기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캠프를 실시한 것은 시연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사후조사를 통해 아버지의 역할 등을 포함한 일부 문항에 있어서는 참가 청소년들의 태도변화가 드러났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프로그램을 연속성을 갖고 진행하면서 추수지도 등을 시행한다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성 지식 수준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대안학교 재학생들이 많았던 관계로 자율성과 개방성, 비판의식 등이 높은 편이어서 성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전반적인 태도변화가 쉽게 드러나기는 어려운 집단이었다는 점도 일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캠프에 관한 만족도

참여자들의 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V-12>과 같다. 먼저 '나는 이번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잘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16.0%), 대체로 그렇다(32.0%)로 응답하였다. 즉 48.0%의 참가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보통(40.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청소년이 88.0%를 차지한 반면 12.0%의 청소년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캠프 참여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나는 캠프 프로그램들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는 대체로 그렇다(24.0%), 보통(48.0%), 대체로 그렇지 않다(24.0%), 매우 그렇지 않다(4.0%)는 반응으로 72%의 참여자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며 '나는 캠프 진행자들이 성실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매우 그렇다 (4.0%), 대체로 그렇다(28.0%), 보통(52.0%), 대체로 그렇지 않다(12.0%), 매우 그렇지 않다(4.0%)로 보통 이상의 반응을 보인 참여자가 84.0%였다.

'나는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활동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다'의 문항에는 대체로 그렇다(16.7%), 보통(58.3%), 대체로 그렇지 않다(16.7%), 매우 그렇지 않다(8.3%)로 보통이상의 응답이 75.0%였다. 캠프 참여자들은 전 항목에 있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V-12> 캠프에 관한 만족도

단위 : 사례수(%)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나는 이번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잘했다고 생각한다	4(16.0)	8(32.0)	10(40.0)	3(12.0)	-	25(100.0)
나는 캠프 프로그램들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	6(24.0)	12(48.0)	6(24.0)	1(4.0)	25(100.0)
나는 캠프 진행자들이 성실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고 생각한다	1(4.0)	7(28.0)	13(52.0)	3(12.0)	1(4.0)	25(100.0)
나는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활동하기 불편한 점(잠자리, 추위, 교통편, 간식, 식사 등)이 있었다	-	4(16.7)	14(58.3)	4(16.7)	2(8.3)	24(100.0)

④ 단위활동별 만족도 및 프로그램 평가

1박 2일간의 캠프기간동안 진행된 총6개의 단위활동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V-13>와 같다.

<표 V-13 > 단위활동별 만족도

단위:사례수(%)

프로그램명	분 류			
	유익하다	보통이다	유익하지 않다	전체
몸과 소통하기	6(28.6)	11(52.4)	4(19.0)	21(100.0)
남성성 이해하기	3(14.3)	13(61.9)	5(23.8)	21(100.0)
자기관리와 성충동	6(30.0)	11(55.0)	3(15.0)	20(100.0)
좋은 아버지 되기	7(33.3)	12(57.1)	2(9.5)	21(100.0)
책임과 안전한 성	9(42.9)	10(47.6)	2(9.5)	21(100.0)
성문화 뒤집어보기 (50분 토론)	5(23.8)	12(57.1)	4(19.0)	21(100.0)

‘유익하다’고 응답한 빈도는 몸과 소통하기 28.6%, 남성성 이해하기 14.3%, 자기관리와 성충동 30.0%, 좋은 아버지 되기 33.3%, 책임과 안전한 성 42.9%, 성문화 뒤집어보기(50분 토론) 23.8%로 나타났다.

캠프 참가 청소년들이 높게 유익했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책임과 안전한 성’, ‘좋은 아버지되기’였고 유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한 프로그램은 ‘남성성 이해하기’와 ‘성문화 뒤집어보기(50분 토론)’이었다.

‘책임과 안전한 성’의 경우 ‘직접 피임기구 체험한 것이 좋았다’, ‘피임방법에 대해 자세한 점이 좋았다’, ‘실용적’, ‘실습식’을 좋았던 점으로 뽑았고 ‘좋은 아버지 되기’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었다, ‘아버지에 관한 시가 좋았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를 좋았던 이유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별로 유익하지 못했거나 재미없었다고 응답한 ‘남성성 이해하기’에 대해서는 ‘지루하고 필요한지 모르겠다’, ‘너무 돌려서 이야기한다’, ‘남성성을 편파적으로 다룬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성문화 뒤집어 보기’의 경우 ‘말이 일관되지 않고 황설수설한 느낌이다’, ‘토론진행이 매우 지루했다’고 응답하였다.

단위활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소감나누기를 통해서도 지적되었다.

‘좋은 아버지되기’에 대해서는 신선하고 좋았다는 반응이, ‘책임과 안전한 성’에 대해서는 피임법 등 실제적인 지식을 익히고 피임기구를 실습해 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남성성 이해하기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되고 너무 지루했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성문화 뒤집어보기 토론은 성매매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이 너무 달라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감나누기를 통해 이루어진 캠프참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청소년만 모인 캠프인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남자들만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성에 대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기존 성교육의 대안적 모델로서 부족한 느낌이다.

둘째, 프로그램 진행방식이 너무 이론중심, 강의중심이어서 지루했다. 딱딱한 강의와 토론이 부담스러웠다. 콘돔실습과 같이 체험과 실습위주의 프로그램, 쌍방향적인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셋째, 여자선생님이 많아서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없어서 싫었다. 남자선배가 있었던 것이 좋았으며 남자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

넷째, 비디오자료 등이 기대에 비해 재미가 없었다.

다섯째, 참가자들이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축구 같이 땀흘릴 수 있고 몸을 풀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여섯째, 여성의 신체, 체위, 피임법, 피임기구 가격 등과 같은 실제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개발팀 평가

프로그램개발팀의 단위활동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이미지 자각

이 프로그램은 성기중심적인 감각에서 벗어나서 몸에 대한 감각과 자극에 집중하고 외부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에 집중하는 것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빠른 흐름에 익숙해져 있는 요즘의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정적이어서 버거웠으며 생소했다. 눈을 감고 집중하는 것을 어색해 했다.

게임이나 활동이 큰 동작을 보충함으로써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실내에서 하기에는 27명의 인원이 너무

많으며 실내와 실외환경을 고려하여 몸동작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남성성 이해하기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남성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입부분이 너무 길어 지루한 감이 있으므로 이를 단축한다. 어떤 남자가 좋은가에 대한 여학생 인터뷰자료가 부적절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강사의 용어 사용이 어렵고 활동이 없는 너무 정적인 프로그램이며 지루한 감이 있었다. 시청각자료가 부족하며 다양한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남성상을 보여주기 위해 보여준 비디오자료 중 신구의 CF는 그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모델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③ 좋은 아버지 되기

청소년들로 하여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한다. 나쁜 기억, 좋은 기억 말하기, 아버지와 닮은 점 중 좋은 점과 싫은 점 2가지를 써서 칠판에 붙이기 등을 실시했다.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 등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의 분출로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그룹사이즈가 크고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해 억압되었다. 아버지와 청소년 자신과의 관계는 청소년에게 남성으로서의 자아 형성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이다. 아버지와의 관계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할 필요가 있으나 익명성이 보장이 안되는 학급상황 등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를 아버지에게 편지쓰기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과정 중 '좋은 아버지 되기'활동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내용에 비해 진행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활동을 2회로 늘려 깊이 있는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한다.

④ 자기관리와 성충동

성충동 조절에 대한 모둠 토론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를 상황을 주고 역할극을 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쏟아 놓게 유도하여야 한다.

⑤ 책임과 안전한 성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실제적 지식에 관심이 많다. 피임법, 성병 등 성 지식 부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 지식을 다루기 위한 시간이 좀 더 배당되어야 한다. 피임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뿐 아니라 자기에 맞는 피임법 등을 선택해보게 하는 등 실천지침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임도구에 대한 불쾌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콘돔 갖고 놀기나 콘돔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등을 통해 콘돔과 친해지게 한다. 약국 개설 등을 통해 콘돔사기 훈련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⑥ 성문화 뒤집어보기

우리사회의 폭력적인 성문화, 상업적인 성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양하려는 취지이다. 성매매 자료를 사전에 주고 토론을 준비시켰다. 성매매는 아르바이트인가?, 누가 성매매를 하는가? 등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성문화를 인식하게 한다. 성매매가 성폭력보다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려운 주제로 논의되었다.

2. 정책제언

우리사회에는 폭력적이며 상업적인 성문화가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남성중심의 성문화, 남녀차별적인 이중적 성기준의 존재로 남성 성

문화의 뒤틀림과 왜곡현상이 심각하다.

최근 들어 청소년 성 매매와 성폭력, 청소년 성경험률 및 10대 임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성중심의, 폭력적이며 상업적인 왜곡된 성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정보화사회와 영상대중매체의 발달, 유흥향락업소의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도 청소년의 이러한 성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청소년 성 문제의 한 쪽 당사자는 남자청소년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기존의 성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자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청소년 성교육은 교육기회나 내용에 있어 여자 청소년에 더 치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성교육을 더 많이 받아왔으며 생리적, 보건적 관점이 강했던 성교육에 남녀평등적 관점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청소년의 '위험한 성'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남자청소년을 보호하고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기관들이 활용해 온 성교육 프로그램은 여성적 코드에서 구성되어 있어 남자청소년들에게 적용될 때는 정서적 흡입력이 약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남자청소년을 위한 '위험한 성' 예방 프로그램은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자청소년의 성 고민과 성교육 요구를 반영하였다.

10대 임신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남자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종, 연령, 집단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자청소년을 위한 '위험한 성' 예방 프로그램은 남자청소년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으로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국내 성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며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남자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남성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 남자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는 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의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성교육은 중·고등학교 보건 담당 교사가 담당해 왔으며 주로 성 지식을 익히는 데 초점이 있었다. 성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순히 성 지식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성 태도와 성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행동의 변화로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임상경험과 집단 상담 기법의 소화·활용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

각급 학교 성교육 지도력의 전반적인 수준은 이러한 전문성을 소지하고 있지 못하다. 본 프로그램은 우선 이러한 성교육 여건을 고려, 담당교사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위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향후 프로그램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교육 지도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성교육을 위한 자료와 워크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남자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남성 지도력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나 성교육전문기관의 지도교사는 여성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남자청소년의 성교육은 남자교사에 의해 지도될 때 친밀감과 정서적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프로그램의 효과가 강화된다.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남성 지도력의 양성이 주요한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연수과정에 남자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연수를 포함하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교육전문기관은 청소년학, 보건학, 체육학 등 대학관련학과와 연계하여 남자대학생 성교육 자원지도자를 양성, 활용한다. 중, 고등학생과 연령차가 적어 친

밀할 뿐 아니라 대학생에 대한 성교육 또한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남자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자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도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실행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도 이를 현장에 보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청소년 성교육은 문제 예방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자발적인 참여동기가 약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보급·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확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그 재원을 학교 등 교육기관에만 한정하여 배분하지 말고 성교육전문기관 등 지역사회기관에도 배분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성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수혜자 역시 학생청소년이다. 이러한 기관이 축적한 전문성이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교사대상 성교육 연수, 학교단위 청소년 성교육, 학생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보완, 대학생 성교육자원지도자 양성, 각급 학교와의 연계체계 구축 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가해/피해자, 청소년 성관련 집단상담 등 학교차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특수집단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보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 지원한다.

셋째, 남자청소년을 위한 '위험한 성' 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일회성을 띠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 성문화와 청소년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프로그램의 실행과 평가가 이루어지며 보완되어야 한다. 성교

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관련부처는 단년도 개발을 지양하고 시연과 실행, 평가와 수정·보완 및 검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 보급까지 연계하는 3년이나 5년 단위의 장기개발계획을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 성교육전문기관과 전문기관, 전문기관과 학교 등의 협력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에 수 개의 청소년대상 전문 성교육기관이 출현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아직 한국사회에는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가 빈약하며 경험의 축적도 일천하다. 이들 기관들은 설립배경,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점과 접근, 활동방식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들이 기관 고유의 입장을 갖고 서로 다른 해결방식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기관이 청소년의 성에 대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면서 서로 협력,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상담위주 성교육프로그램, 활동위주 성교육프로그램, 남자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 등 해당 기관의 성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연수를 지원하거나 학교 성교육 교사 연수의 공동주관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와 협력을 지향하게 한다. 또한 학교와 이들 기관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학교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가 담당하고 학교 성교육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등 좀 더 협조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과정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주기적인 추수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평가를 받은 미국의 남자청소년 대상 임신예방 프로그램인 Brothers to Brother는 5주 정도의 단기프로그램이지만 멘토

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2주에 1회씩 6개월 동안 추수지도를 한다. 성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10주 이상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실시, 추수지도 등을 통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모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남자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관계, 의사소통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남자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배운 성관련 정보를 부모와 나눌 수 있도록 부모의 날 행사 등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이나 또는 중간,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내용으로는 청소년 성행위의 결과, 청소년 성교육의 내용, 자녀와 성에 대해 대화하는 법 등이다.